



www.maggun.com

2017. 04 vol. 73

MAGAZINE Gunsan

People & Culture in Gunsan



Cultural Missionary

- 한중민간인친선협회 **이광석** 회장
- 군산대 **김항석** 교수의 인도이야기
- 군산문화원 **이사준** 이사
- 군산시 한국수어통역센터 **김용태** 사무국장
- 새만금골프존스크린 **안병운** 대표
- 한국생활음악협회 군산시지부 **정인숙** 지부장
-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 **김옥분**
-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듣다 - 국민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통령뽑아야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동북아 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세계 최장의 33.9km 새만금 방조제!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광고를 고민하신다면!

발행부수 5,000부,

군산 전 지역 무료배포, 1,500부 발송!

높은 회독률과

지역 독점 기사의 집중도까지 따져보신다면
매거진군산의 광고효과는 탁월합니다.

이제

광고마케팅은 매거진군산에 맡기시고
당신은 사업에만 집중하세요.

매거진군산

a. 54027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2층

t. 063-445-1856 f. 063-911-1856 wh. icm23 (icm23)

finefeed
We bring the finest feeding.

최고의 사료원료만을 취급합니다

미주에서 직수입하는
모든 종류의
동물사료원료를
최저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취급품목

알팔파 건초 (Alfalfa Hay)
티모시 (Timothy Hay)
톨페스큐 (Tall Fescue Straw)
애뉴얼라이그라스 (Annual Ryegrass)
페레니얼라이그라스 (Perennial Ryegrass)
클라인그라스 (Klein grass)
오차드그라스 (Orchard grass)
연맥 (Oaten)
전지면실 (Cottonseed)
비트펄프펠렛 (Beet Pulp Pellet)
툼밥

finefeed

We bring the finest feeding.

파인피드

54140 전북 군산시 나운안1길 9-5, 2층 202호

T 063-471-8837 F 063-471-8836 www.finefeed.co.kr

SINCE 1993

하이트진로

hite



여러분은 이제부터
hite만 마십니다!

친맥하라 hite

정기 Q.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에 해를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꿈이란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예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예요.”

카카오 브런치북 2회 대상 수상

인생을 스스로 걸어가는 소도시 청년들의 리얼 다큐멘터리!

무대가 없으면 어때? 목적 없는 공부를 왜 해? 대학을 안 나오면 어때?
농사가 어때서? 한 번쯤 망하면 어때? 서울에 살아야 할 이유는 뭔데?



우리, 독립청춘

우리는 소도시에서 일한다

배지영 지음

인생을 스스로 만들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소도시 청년들의
따라하고 싶은 43가지 이야기!

북노마드



사랑부 친구들

청년이 되어도 말이 더디고
아이 같은 친구들

세상에 내 눈 멀어 있을 때
천국 바라보는

육신의 눈 뜨고 있어도
영혼의 눈 감고 있는 자들이 갖지 못할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진
개복교회 사랑부 친구들

세상 외면할지라도
아침이슬같이 맑은
그 영혼 견줄 자 있을까?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레위기 19:14)



※ 사랑부 개복교회 주일학교 장애후 부서
전북 군산시 중앙로 119-5
개복교회 (163-442-2401)

최 윤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생명응용과학부 교수

리플리 증후군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는 미국 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씨'에서 유래한다. 소설 속 주인공인 리플리는 거짓말을 반복하다가 결국 거짓말을 현실로 착각한 채 환상 속에 사는 인물이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리플리 증후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으며 학력위조사건, 미국 유명사립대학 합격사실 거짓통보 사건 등이 사례로 분류된 바 있다. 리플리 증후군은 자신이 건설한 허구의 세계를 진실이라 믿으면서 거짓 행을 반복하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리플리 증후군은 보통 개인의 사회적 성취욕이 크지만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 발생한다. 너무 간절한 나머지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바라는 세상을 가공해 그 세계를 실재라고 여긴다. 최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접하며 왠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떠오른다. 사익추구의 집단과 손잡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리고서도 국민을 향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책임회피에만 연연하던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파면당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고 피의자로서 결국 구속까지 되고 만 현실은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라는 인물은 외부와 단절된 채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무엇인지, 책임이 무엇인지 전혀 학습되지 않은 바보 공주로만 길들여짐으로써 분별력이나 판단력 자체가 결여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신이나 의지가 아닌 남이 써준 것만 읽었고 그랬기 때문에 책임감도 없었을 터이다. 그녀는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렸고 자신을 지지해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하지만 여전히 발뻘만 할 뿐 반성은 없다. 그래서 더욱 안쓰럽기조차 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 편향성이 있어 본인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나와도 부정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잘 된 일은 내덕, 잘못된 일은 남 탓을 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정 최고 수반이 아니었던가. '모든 일은 내 잘못이요, 내 부덕의 소치'라는 진솔한 사과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매거진군산에 독자의견을 보내주세요.

매거진군산은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어떤의견이든 괜찮습니다. www.maggun.com의 독자의견에 올려주시거나 jay0810@hanmail.net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맥군의 오타를 잡아라>

이달부터 맥군의 오타자를 찾아 주시는 분께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이나 팩스로 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십시오.
E-mail _jay0810@hanmail.net **Fax** _ 063) 911-1856

협찬업체

베니키아 아리울 호텔 063-464-2005~7_ 숙박권
오죽 063-464-5625 _ 식사권
하이트진로 063-453-5111_ 맥주
미즈커피 063-446-2867_ 음료권
바나나팩토리 070-4274-8839_음료권
커피점빵 063-468-1776_ 음료권

* 군산 하이트 진로에서 제공하는 맥주를 받고 싶은 구독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미성년자 불가)하시고, 매거진군산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직접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매거진군산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을 협찬하시고 싶은 업체는 연락 바랍니다.

이벤트 당첨자

* 응모시 주소, 연락처, 원하시는 상품을 필히 기재해주세요.
지난 호 크로스워드 퍼즐 당첨자

고은지	고승현	김수현	최상식	서정원
임성화	김민지	여고은	이용선	박재상
송정미	오귀례	이선영	안민주	윤진화

1945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Thanks to rice and nature. Since 1945 bakery that considers your health. The beginning of a healthy day is baked here! The place where it gives a stir in one's heart By Lee Sung Dang Bakery.

LEE SUNG DANG
Thanks Rice & Nature / Health Bakery 1945

해방과 함께 시작된 ‘이성당’의 내공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건강한 빵

이성당은 자연과 쌀에 감사하며, 손님을 대접하는 정성스런 마음으로 항상 노력합니다.

이성당의 대표적인 빵은 앙금빵과 야채빵이 있으며,

2006년 부터는 쌀과 빵을 연결하는 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블루빵'으로서 일본의 니가타현에 있는

'겐리치' 제과점에서 전수 받았습니다.

현재에는 효모종을 이용한 다양한 쌀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LEE SUNG DANG

대한민국에서 가장오래된 빵집
주문및 상담 . 전화 063-445-2772, 080-445-2772(무료)
전북 군산시 중앙로 1가 12-2

배포처

매거진군산은 매달 초 1~3일에 발간되며 아래 배포처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발간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으니 서둘러 주세요.

원도심_ 신포우리만두 063-445-0389
골드북권방 063-445-1212
던킨도너츠 063-443-7887
미다원 063-462-2132
우리문고 063-445-0031

나운동_ 비달헤어 063-461-7015
한길문고 063-463-3109

은파_ 파라디소페르두또 063-471-8525
유원지_ 산타로사 063-462-9062
뮤직포유(RE D HAT) 063-466-8202

기 타_ 군산역
군산CC 063-472-3355
커피집빵 063-468-1776
군산근대역사박물관 063-443-8283
고우당커피숍 063-443-1042
아리올 웨딩 063-453-3200

구독문의

매거진군산은 매월 초 발행되며 위 목록의 장소에서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타지역 및 맥에서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보실 분께서는 홈페이지 www.maggun.com 의 정기구독 코너에 성함, 연락처, 주소와 입금자 성명을 남겨주시거나, 매거진군산 (063)445-1856으로 연락 주시면 1년간 매달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일 년 배송료는 25,000원입니다.

입금처_ 신한은행 110-327-977900

예금주_ 아이씨엠 이진우

광고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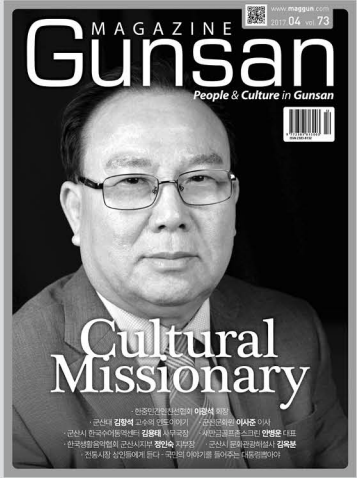
매거진군산에 광고를 게재하고 싶으신 분께서는 광고 마케팅 담당자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광고마케팅 부서_ (063)445-1856

기사제보

주변의 즐거운 이야기와 흥미로운 인물 등을 매거진군산에 제보해 주십시오. 또한 저희 매거진군산과 편집의도와 방향이 어울린다면 누구나 자유기고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글, 멋진 사진을 보내주세요.

jay0810@hanmail.net



Vol. 73 | 2017.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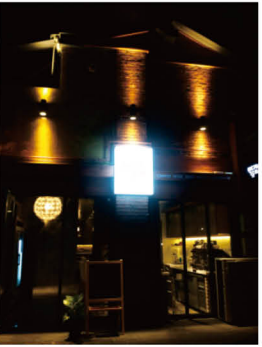
발행인·편집장	이진우	jay0810@hanmail.net
디 자 인	박유경	282pyk@hanmail.net
	진현태	gkfp3456@naver.com
	김동섭	nan901125@naver.com
주 간	오성렬	poi3275@naver.com
시 민 기 자	조종안	chongani@hanmail.net
상 임 고 문	이희찬	lhc-good@hanmail.net
시 민 기 자	배지영	okbjy@hanmail.net
시 민 기 자	이생곤	grandlee@kmni.co.kr
시 민 기 자	심권택	sys2091@daum.net
컬 럼 니 스 트	온승조	gsforum@hanmail.net
컬 럼 니 스 트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제작_ ICM (063)445-1856
주소_ 전북 군산시 큰샘길 1
출판신고번호_ 467-2011-000002
인쇄_ 진포인쇄 (063)471-1318
온라인_ 웹닉스 (063)453-5430

매거진군산은 www.maggun.com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매거진군산에 실린 글과 사진은 사전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매거진군산은 한국도서잡지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타간행물사업 신고번호_ 군산 라00007 / 매거진군산은 군산사람들과 군산의 라이프스타일을 코디해주는 오직 군산사람들을 위한 잡지입니다.



COFFEE WINE BEER PASTA SANDWICH



군산시 둔율1길 2 (안동집 옆) T. 070-4152-0466





민간 외교의 튼실한 가교

‘한·중민간인친선협회’
이광석 회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한·중민간인친선협회 태동

최근 사드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중 간 냉각기를 맞고 있는 와중에도 지속적으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친교를 이끌며 활발히 활동하는 한·중민간인친선협회(이하 협회) 이광석 회장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들어본다. 돌이켜보면 1990년대 양국 관계가 해빙 무드를 타며 교류의 물꼬가 트이던 시기 군산시와 중국 연태시 간에 자매결연이 체결됨에 따라 1994년 군산시미술협회와 연태시 미술협회 간 협의가 이뤄져 한국의 서예가와 중국 서법가들의 문화교류행사가 성사된 것이 협회 창설의 첫 단추가 된 셈이다. 이후 군산서해대학이 교육부로부터 중국어통역과 40명의 입학 인가받아 중국 연태사범대학(현 로동대학(魯東大學)) 및 연태 감사한국어대학과 교류가 시작되면서 당시 서해대학에 근무하던 이광석 회장이 자연스럽게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1998년 서해대학과 로동대학이 우호협력자매결연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1999년 5월1일 군산시 개항 100주년 기념행사에 맞춰 로동대학 교수와 민간인,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중국예술공연단 128명이 군산을 찾아 공설운동장, 군산대 대강당, 서해대 대강당, 내항 등에서 공연을 펼쳤는데 서해대에서 이들의 숙소와 접대 등 모든 의전을 담당한다. 이후 로동대학 측에서 매년 40명씩 서해대 학생들에게 한 학기 수업을 수강토록 함에 따라 HSK(중국어능력평가시험)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현지 학생생활지도담당으로 이광석 회장을 파견함으로써 이 회장의 중국생활은 그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2002년도 감사한국어대학 측으로부터 강의요청이 들어와 특강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그 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중국어도 익히고 중국 측 인사들과의 친교도 넓히게 됨으로써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때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1개월간 중국어 통역 자원봉사를 하는 등 이러한 일련의 교류 활동들은 후일 '한·중민간인친선협회(이하 협회)' 창설의 촉매제가 되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초석이 된다.

2003년 10월 서해대학 장영 교수가 한국 측 회장, 로동대학(魯東大學) 왕기공 교수가 중국 측 회장이 되어 비영리사회단체로 창립된 협회는 각국 공히 100명씩 200명의 회원으로 출범, 두 단체를 총괄하는 총회장으로 이광석을 선임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회원들이 상호간 국가의 언어능력을 활용하여 자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언어 등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관련 국제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문화와 전통을 교류함으로써 우의와 친목을 돈독히 하자는 취지로 창립된 것으로 어느덧 15년차를 맞고 있다.



협회의 주요 활동 사례

■ 중국 측 활동

2006. 7.21 : 협회와 중국 길림성 통화시(通化市)의 우호교류협력 체결. 통화시 일원 황사발원지에 인민정부 공무원들과 함께 군산시와 서해대에서 지원한 묘목(200만원 상당)식수. 백두산 압록강 월랑도 등의 문화탐방과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릉 견학.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고구려 역사와 유적을 빼앗기는 것에 대해 회원들 모두 통탄함.

2013. 8.11~18 : 협회와 군산개정교회 트립팀의 산동성 청도시, 연태시, 봉래시, 위해시, 용구시, 모평시, 해양시 등의 순방과 문화탐방. 로동대학에서 기초중국어 어학연수 및 중국 식생활문화 등 학습.

2014. 8.10~17 : 산동성 성도인 제남시를 비롯하여 곡부시, 태안시, 연태시, 래주시, 래양시 등 문화탐방.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방지일 선교사가 산동성에 선교한 기산당교회 방문, 기독교역사 공부 및 체험. 로동대학교에서 중국어 어학 연수.

2015. 10 : 로동대학 외사국 초청으로 한국 측 회장이 1개월간 로동대학 외국어학원 한국어 계 학생들에게 특강. 군산 예총 조성문 직전회장의 군산학 특강. 초원시, 해양시, 치사시, 래양시, 래주시 등을 돌아보고 해양시에서는 금광제굴현장 체험.

군산시와 연태시 간의 국제행사가 있을 시 양국 회원들이 다수 참여하여 행사의 지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펼치고 특히 새만금 국제마라톤대회 행사에는 상호간에 응원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또한 격년제로 번갈아 열리는 미술협회 전시회는 두 나라간의 참여와 지원, 봉사활동에 적극성이 돋보였고 로동대학에서는 문동신 군산시장을 명예교수로, 협회 이광석 회장을 겸직교수로 위촉함으로써 우정과 신뢰를 보였다. (그 밖의 다양한 활동은 지면관계로 생략)

■ 한국 측 활동

2003. 10.27 : 협회 발대식에 중·한민간인친선협회 사무국장 류효동 교수와 전월순 교수가 참석하여 축하메시지 전달.

2008. 8. 1~8 : 로동대학 교수진들로 구성된 중·한민간인친선협회 회원28명이 군산시를 방문, 완주군 대둔산, 전남 광양제철, 군산 대우자동차, 오비씨그랜, 동양화학, 대상그룹 등을 견학하고 서울교육문화회관 세미나 참석. 이후 로동대학에 한국학 강의가 점진적으로 시작됨으로써 한국학당과 군산학강좌가 개설되어 활발히 진행 중.

2015년 8월에는 중·한민간인친선협회 이사장덕강 교수와 허국춘 로동대학 외사국장, 호효청 국제교류원장이 협회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촉진하기로 약속하고 돌아감.

로동대학교 겸직교수 위촉

이광석 회장은 2007. 3월부터 연태시 감사한국어대학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한국어 강의 시작하게 됨에 따라 로동대학교 외국어대학에서도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회장의 강의 과목은 한국어 및 한국문화사, 직장인의 예절, 한국관광자원 등으로 인기를 모았으며 수강 학생들이 뜻을 모아 중국 전역의 한국어과 학생들을 위한 '무궁화솜'이라는 한국문화교양지'를 발행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학 지도교수인 이광석 교수를 존경하고 기리는 마음에서이기도 하다. 이로써 2009년에는 로동대학교 이청산 총장으로부터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국제우인특수공헌장'이라는 공로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2010년 6월 정식으로 로동대학교 정식 교수 및 한국측 입학관리처장으로 임명받아 양국 간 외교사절 역을 자임하며 열과 성을 다하고 있다.

새만금서예문인화진흥회

협회와 별개로 이광석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새만금서예문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는 33년 전인 1984년 비국전과로서 군산의 서화 계를 선도하던 관내 교육계 인사들에 의해 월명서화동호회로 결성되어 맥을 이어오다가 새만금개발 시점 무렵 타 동호회와 통합, 성인대회를 비롯하여 금강 권 학생서화실기대회를 여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이광석 이사장은 선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을 계승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을 다지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넘치는 의욕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진흥회는 결성 당시 새만금권인 부안, 김제를 비롯하여 익산에서도 자신들이 유지하고자 의욕을 불태웠으나 힘겨운 노력 끝에 군산이 선점하게 되었고 지난 2011. 5월 사단법인체로 등록, 순수 동호회와 법인체로 2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사장의 건의에 힘입어 도지사 상과 국회의원상이 신설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회원들의 작품 활동 여건 마련과 작가로서의 자부심을 배가시키고 있다. 진흥회는 그간 선배들의 뜻을 계승하여 약 100여명의 작가를 배출했거니와 수백 명이 참여하는 작년의 25회 전국 전시회까지 많은 수상자를 낸바 있으며 신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써 서예문인화를 공부하는 이들에게 길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중국에 내걸린 이광석 회장 환영 플래카드

협회 회장으로서, 로동대학 겸직교수로서, 새만금서예문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한·중 간 친선교류를 위한 일상 활동과 행사 관계로 수시로 중국을 드나드는 이광석 회장에게 피곤을 잊게 하고 격려와 의욕을 북돋아 주는 일이 있다. 중국에 갈 때마다 이 회장이 도착하는 역사(驛舍) 건물이나 행사장에 주최 측에서 이광석회장을 열렬 환영한다는 커다란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대적으로 환영을 나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대는 한국인으로서 거의 전례가 없던 일로서 이 회장은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짐을 느낀다. 중국인들이 이처럼 이 회장을 환영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중국에서 많은 이들을 접촉하면서 진심을 담은 활동으로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중국인들은 어떤 일을 앞두고 본능적으로 제일 먼저 적인지 아군인지부터 식별하는 경향이 있어 상대가 신용할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늠해본다는데 따라서 일단 신뢰를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 모든 이해타산을 초월하여 비로소 파트너로 인정, 가까이 다하며 이로 볼 때 이 회장이 오늘날 그들에게 신뢰를 얻기까지 얼마만큼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어렵지 않다.





대 중국 민간주도형 우호교류에서의 유의할 점.

북경에 있는 한민족공동체 매스컴은 한국의 소인배들이 판치는 민간외교로 중·한 관계를 망치고 있다는 기고를 한바 있다. 역사적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것이 단합력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반면에 타국의 이질적 문화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은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맞아 국가 간의 교류 경계가 허물어지는 추세에 비춰볼 때 바람직스럽지 않은 측면이라 할 것이다. 이 지구상에는 단일민족국가보다는 다민족국가, 즉 여러 민족을 아우르는 국가들이 많으며 따라서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되기도 하는 등 범지구적 사고의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단일민족 국민은 자기중심적 사고와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해 소외를 자초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도 한다. 중국인들은 새롭거나 다른 것을 보면 '아니 이런 것도 있네!'하며 호기심을 갖지만 한국인들은 '우리 와 다르다'면서 거부감과 경계심을 갖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중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이 우리와 다른 부분을 보았을 때 그들의 고유한 문화로 이해하기 보다는 못된 점, 부족한 점을 들춰내어 홍보기 바쁜 일들은 단일민족 국민의 편협한 심리반응이라 말하는 이도 있다. 또 알아야 할 것은 중국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를 한국국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조선족 동포의 국적은 분명히 중국이고 중국국민인 것을 확실히 인식해야 된다. 코리안은 모두가 절대 한국인을 이르는 말은 아니며 그 속에는 한국국민도 있지만 조선인,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 러시아인, 고려인 등 그 밖에도 여러나라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북경의 언론 매체가 소인배가 판치는 민간교류 한국인이라 한 것



은 물론 모든 한국인을 지칭한 것은 아니며 타문화를 멸시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며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몰지각한 사람들을 염두에 둔 말일 것이다. 공산품 질이 낮고 비위생적이라는 등 그릇된 선입견으로 우리는 그들을 알보기도 하지만 솔직히 역사적으로나 국가의 규모나 경제, 군사력으로 볼 때 우리는 그들의 상대가 된 적이 없으니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소인배라 무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그들을 능가하지는 못할지언정 소인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는가. 따라서 대한민국, 특히 우리 군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민간단체들은 보다 성숙한 민간외교 자세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중국을 대할 때 우리 자신의 인품과 위상도 높아질뿐더러 군산을 더욱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국격을 상승케 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내을 것이다.

문화인, 교육자, 민간외교관, 종교인으로서의 삶

군산시 개정면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출생한 이 회장은 일찍이 모태신앙으로 기독교적 삶속에서 자아가 형성됐으며 해병대 제대 후 대학근무를 하면서 사회와 접하며 서예에 입문하는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잠재력에서이기도 하겠지만 사회와 국가에 대한 봉사과 기여라는 삶의 철학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서예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 보급 활동, 로동대학 교수로서 우리 한국을 중국에 제대로 알리고 학술 교류를 이끄는 등의 교육활동, 한·중민간인친선협회 회장으로서 양국 간 관계를 증진하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등 우호협력증진을 위한 실천적 기여 등 이는 정부 주도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드 문제로 촉발된 최근의 교류 제재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내다보고 있다가 외교력의 부재, 경제리더십의 부재가 큰 원인이 되었고 대선 주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에만 매달려 이 문제에 대한 해법 제시를 전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못하면 민간이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렇수록 민간인우호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간다면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말을 들려주는데 그 표정에서 확신이 엿보이기도 한다.

사)한·중민간인친선협회
새만금서예문화진흥회
군산시 중정1길19(개복동)
063)446-1101

약력 및 경력

(초대작가)
전북서예대전
호남 전국미술대전
대한민국 해동서예·문인화대전
대한민국 한민족서예·문인화대전
대한민국 현대서예·문인화대전.
한국문화미술대전
아시아문화미술대전
중화인민공화국 교육학원 연합판학 중국화과정(2004 졸업)
대한민국서예대전 국전5회 입선

세계 서예비엔날레 추천작가전
일본 서예명가초대전
홍콩 창조미술관 초대전
한·중·일 문화협력미술제 초대전
아시아미술초대전 운영위원
중국 북경 서화명가초대전
대한민국 새만금서예·문인화대전 심사, 운영위원장, 이사장
재)한국농촌위생원 이사
한·중민간인친선협회 회장
중국 산둥성 연태시 로동대학교 교수
개정교회 장로

나마스테! 인디아!

어느 노교수의
인도여행과 인도 이야기

글 | 김항석(군산대 명예교수)
hskim@kunsan.ac.kr



아껴둔 여행지 인도

인도는 오래전부터 꼭 가보고 싶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인도라는 나라는 마지막까지 아껴 두었다가 맨 마지막으로 여행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른 곳을 여행해도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거나 충격 때문에 더 이상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껴두었다가 70고개를 넘어 이제야 인도여행을 떠났습니다. 도대체 인도에서 무슨 충격을 받을까?

텔리 인디라칸디 국제공항을 나오자 한 때의 빼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물리치고 소형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울퉁불퉁한 아스팔트길을 버스가 마구달리니 엉덩이는 아프고 사람과 자동차와 오토릭샤가 넘치는 길을 운전사가 가고 싶은 대로 사람과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스쳐가니 아~ 아~ 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 아! 여기가 인도구나!

호텔에 도착하자 우르르 몰려나온 종업원들이 “나마스테”하며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정중하게 인사를 합니다. ‘아! 친절하구나.’ 나마스떼(NAMASTE)는 고대 언어 산스크리트어로 ‘당신을 존중한다’ 즉 ‘세상에 태어남과 만남을 소중히 여겨서 당신의 영혼을 존중하며 당신이 믿는 신께 경배를 드립니다’라는 심오한 뜻이 담긴 인사라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인도여행은 여행일까? 고행일까?

인도하면 떠오르는 것이 힌두교이며 힌두교의 성지가 바라나시(Varanasi)입니다. 바라나시 거리는 수많은 순례자들과 자동차, 오토바이, 리샤 그리고 소들이 뒤엉켜 어울려 살아가는 혼잡한 도시였습니다. 거리에는 소가 어슬렁 어슬렁 대로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중앙 분리대 그늘에서 한가로이 여물을 씹고 있었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으뜸은 갠지스강이었습니다. 가는 길에서 몇 차례 시신을 싣고 가는 인도식 장의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수백, 수 천리를 멀다하지 않고 갠지스강을 찾아가는 장의차를 보면서 삶과 죽음은 하나로 이어진 선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갠지스강 성지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위해 목욕하는 힌두교들을 위해 가트라고 하는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가트(Ghat)에서 갠지스강 물로 몸을 씻으면 인생의 묵은 업장이 씻겨진다고 여기는 힌두교인들은 그 강에서 목욕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시신을 성스러운 갠지스강 물로 씻은 후에 화장하여 유골을 갠지스강에 뿌리면 천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믿는 힌두교 정신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갠지스강 입구를 꼭 채운 엄청난 관광객과 가트에서 목욕하는 순례자와 시신을 태우고 그 재를 강물에 뿌리는 모습에서 ‘인도여행은 여행으로 그치지 않고 수행을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 인도! 여행인가? 고행인가?





김항석 교수
1945년 군산시성산면출신
1981년군산대경영학과 교수로 부임
군산대사회과학대학장. 대학원장
그리고 군산분권운동본부대표
한국글로벌경영학회회장 등을 역임

카마수트라는 인도의 性典

고대 인도인들에게 성은 지식, 해탈과 함께 인생의 3대 목표였습니다. 이러한 성 사상과 윤리를 집대성하여 인도인들의 성생활을 위해 산스크리티어로 표현한 책이 카마수트라(Kamasutra)입니다. 카마수트라에서는 인생을 소년기, 청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소년기에는 지식과 재화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하므로 성애에 마음을 쏟아서 안되며 청년기에는 성애에 전념할 시기이고, 노년기에는 정법과 해탈에 정진해야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애에만 몰두하면 쾌락에 빠져 정법과 실리를 등한시 함으로서 인간의 중요한 도를 완전히 깨달을 수 없으며 정법과 실리를 이용하여 성애를 완성시킬 때만이 인생의 쾌락과 내세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성애의 나쁜 영향과 그 피해를 막는 방법과 치료법을 잘 숙지하여 정법, 실리, 성애의 세 가지 힘을 완전히 터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 바로 카마수트라라고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카주라호에 있는 사원들은 가지각색의 수많은 성행위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조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상세하고 절묘하게 묘사한 모습에 절로 감탄을 했습니다. 카마수트라! 性典인가? 예로의 극치인가?

영원한 사랑의 무덤궁전 타지마할

남녀간의 깊은 사랑은 때로 기적을 만들기도 합니다.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지라도 영원히 사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을 아름다운 건축물로 표현한것이 바로 아그라의 타지마할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되는 타지마할은 세기적 사랑이 탄생시킨 걸작입니다. 타지마할은 「마할의 왕관」이란 뜻으로 무굴왕조의 5대 술탄, 사자한(Shah Jahan)이 왕비 뭉타즈 마할을 위해 만든 무덤입니다. 사자한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뭉타즈 마할이 열네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그녀가 그만 열네번째 아들을 낳다가 서른아홉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자한은 같이 죽고 싶어 했으나 죽지는 못하고 온갖 예술적 정열과 국력을 쏟아 22년 동안 왕비의 무덤 궁궐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타지마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담긴 타지마할은 높이가 75m나 되며 내부에는 입구 한 가운데에 뭉타즈 마할 그리고 그 옆에 사자한의 무덤이 나란히 남북으로 놓여 있는데 이 무덤은 관광객들을 위한 상징물이고 진짜 무덤은 지하층에 똑같은 모습으로 놓여 있다는 군요. 연인들의 영원한 사랑을 위해 기도하는 곳, 타지마할은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아! 타지마할! 진정한 사랑인가? 집착인가?

“인도여행” 감탄과 충격의 나날이었습니다. 현대와 원시가 공존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곳, 가난 속에서도 베품이, 혼잡 속에 여유가, 무질서 속에 질서가, 모두가 수많은 신을 믿는 사람들... 당신이 믿는 신을 존중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떼! 인디아!



군산 로컬푸드 1호점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글 | 이승신(오븐 쿠키 스튜디오 대표)
seung0420@nate.com



로컬 푸드는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장거리 이동과 다단계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에
서 소비하는 새로운 먹거리 유통문화이다.

요즘 로컬 푸드 매장에 가면 쭈, 달래, 두릅, 냉이 등 봄나물들로 가득하다. 로컬 푸드 이용 시 가
장 좋은 점은 신선한 제철재료를 바로 확인 하고 구입 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 가끔씩 방문 할
때 새로 나온 제철 채소류를 보는 재미가 솔솔 하다. 농가들마다 정성 드려 재배하고 깔끔하게
다듬고, 애써 포장한 식재료를 보면서 농가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당신 곁에 우리 먹거리」라는 슬로건 아래 2014년 6월 옥산농협 로컬 푸드 직매장은 옥산농
협에 군산 로컬 푸드 1호점으로 문을 열었다. 매장 면적은 하나로마트 203㎡, 로컬푸드직매장
180㎡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6년말 현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416명의 출하농업인등
이 로컬푸드직매장 출하교육을 이수하였으며, 240여명의 출하농업인들이 농산물과 농식품을 출
하하고 있다. 출하교육 이외에 이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품화와 안전성, 관련 법령에 의한 표
시사항 등에 관한 보수교육을 연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옥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소비자 분석 결과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철저한 관리와 신선한 과채류 공급으로 소비자에게 상당한 만족감을 주고 있다.

2016년 7월 4일과 8월 2일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분석 설문조사 결과 옥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이용 고객의 92.5%가 군산지역 주민들이었고, 이 중 군산시내 거주자의 비율이 76%를 차지한다고.

40대와 50대가 전체 매장 방문객의 73%에 달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 방문객인 40~50대 중 여성의 비율이 6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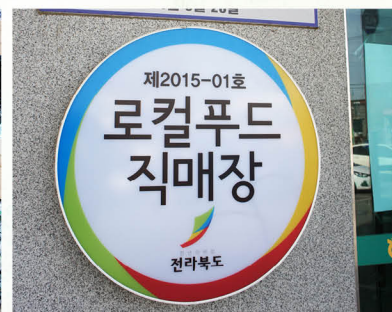
매장 이용 횟수는 주 1회 꼴에 해당하는 월 3~4회 이용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고, 1~2회가 21.6%, 5~8회가 1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구매하는 상품은 채소류의 비중이 70% 넘게 나타났으며 과일류, 가공식품류가 그 뒤를 잇는다.

1회 이용 시 소비하는 금액은 객단가 2~3만원대가 전체의 78%를 차지하며,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이유로 응답자 75%가 안전성이 확인된 신선한 채소류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로컬푸드 매장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조사되었다.



옥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은
이렇게 운영됩니다.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지역에서 가공한 농식품을 판매합니다.
- 농협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출하약정을 하신 농업인만 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습니다.
- 농업인이 직접 포장, 진열하며 가격을 결정합니다.
- 당일 판매하고 남은 농산물은 농업인이 직접 수거합니다.
- 신선농산물은 1일 유통을 원칙으로 합니다.
- 모든 농산물에는 농업인의 이름과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 중소농업인,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퇴직 후 귀농 농업인의 농산물을 우선 판매합니다.



지속적인 안전성 강화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식품 안전성에 대한 걱정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속하여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신선한 농산물의 판매와 함께 안전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로컬푸드직매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은 출하교육을 수료한 후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정밀검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출하자격을 부여(2017.10.01. 실시)할 수 있도록 옥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운영지침에 의해 명시하고 있으며, 출하교육을 이수하여도 잔류농약정밀검사 결과가 부적합하게 나올 경우 출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2017년 약 1,100만원의 잔류농약정밀검사 관련 예산을 자체 책정하였으며, 농업인들이 적합한 이유 없이 잔류농약정밀검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농업인들의 출하를 금지하게 되어있다. 이외에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연간 40건 안팎의 잔류농약정밀검사를 재배지와 매장 내 수거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정 로컬푸드 매장(제2015-1호)으로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의 사후 모니터링과 잔류농약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의 모니터링 계획에 의거 농산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박규석 조합장은 '앞으로 도시와 농촌,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며, 2017년 하반기 매장을 확장하여 소비자에게 친화적인 매장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라고 말했다.

군산 로컬푸드 1호점인 옥산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이 철저한 관리와 노력, 농가 교육으로 더 많은 소비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로컬 푸드 매장으로 발전하길 기대 해본다.

옥산농협로컬푸드직매장
위치: 군산시 옥산면 산성로 222
영업시간: 연중무휴이며 하절기 08:00~20:00시
동절기 08:00~19:00시



“세월호 봤을 때 유가족 된 것처럼 마음 아파”

이사준 군산문화원 이사가 전하는
64년 전 행운환 침몰사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수면위로 떠오른 세월호를 보고 가슴이 아팠다며 옛 추억을 떠올리는 이사준 이사



원나포 공주산에서 본 금강. 아래 동그라미 표시가 선착장이 있던 자리

천 리를 에두르고 휘돌아 군산에서 탁류가 된 비단 물길 금강(錦江). 그 금강이 군산에서 처음 만나는 마을은 원나포이다. 이곳은 임피군에 속한 포구였다. 조선 경종 2년(1722) 공주·연기 입구에 있던 나리촌 임무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나리포(나시포)라 부르게 된다. 1914년 옥구군에 속하면서 ‘나포’라 하였고, 광복 후 현 나포면 소재지(옥곡리)가 중심지 기능을 하게 되자 나리포는 본래 나포라는 뜻의 원나포가 된다.

조선 시대 나리포는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 지역 해산물과 수공업 제품을 내륙의 곡식과 교환하는 일종의 관영 시장이었다. 도서 지역에 흉년이 들면 구휼미를 보냈던 것. 나리포 덕에 제주도를 비롯한 섬 주민들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었다. 또한, 불공정한 물물교환 폐해를 줄임으로써 균형 잡힌 시장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처럼 번성하던 나리포는 조창제도 폐지와 육로교통 발달, 산업의 변화 등으로 포구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파시 때면 문전성시 이뤘던 원나포

기록에 따르면 공주산(65m) 아래 나리포는 수십 척의 어선과 조운선이 출입하였고, 포구에만 100여 호의 민가가 있었다. 일제강점기는 물론 광복 후에도 해마다 5월에는 조기 파시가 쏘다. 보부상도 드나들었고 선주들을 상대하는 객주도 여럿 있었다. 주막들도 호경기를 누렸다. 아름다운 전설을 간직한 공주산(관련 기사 : “발견한 유물, 내꺼다 하면 감옥갑니다”)에 ‘영신당’이라는 당집이 있어 주민들이 해마다 당산제를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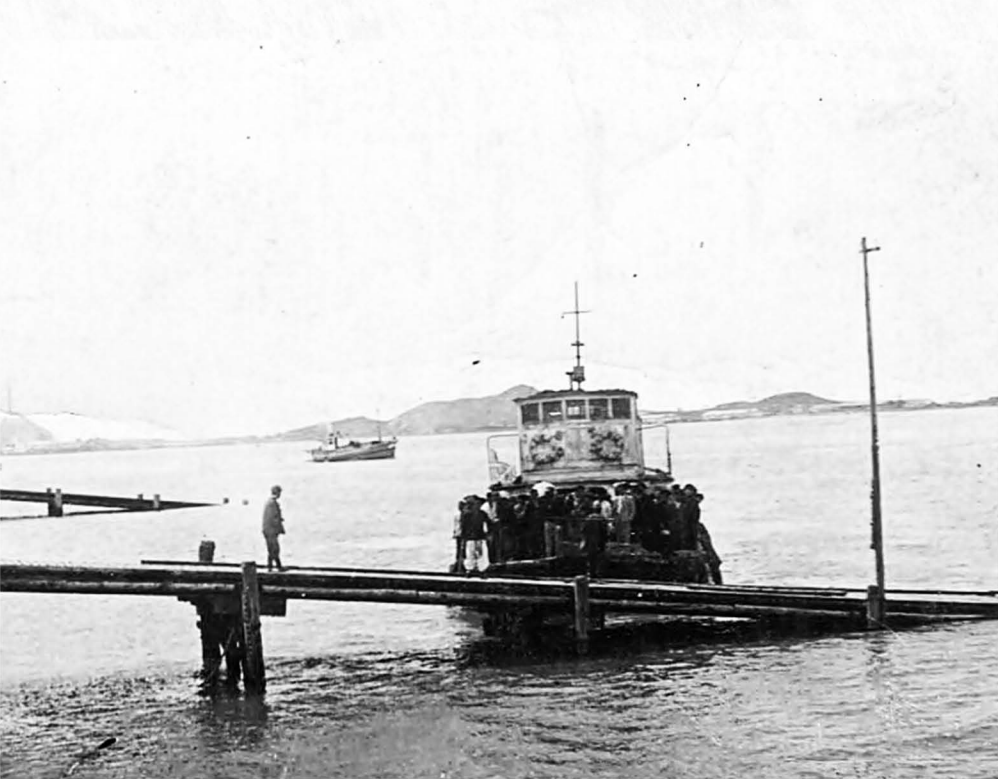
금강은 서해와 전라·충청 내륙을 하나로 이어주는 중요한 뱃길이었다. 금강변 포구들은 군산항과 더불어 일제 수탈의 통로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일제가 어선을 비롯해 여객선, 물자 수송선 등의 안전 운항을 위해 강경 황산 포구와 군산 재보선창에 등대를 설치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지금도 충남의 논산, 강경, 전북의 웅포, 나포 등에는 포구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

나포면 장상리 서지마을에서 500여 년을 조상 대대로 살아온 이사준(83) 군산문화원 이사를 만났다. 그는 “원나포 입구에 있는 수문 아래에 군산~강경을 오가던 여객선 선착장이 있었고, 그 옆에는 장꾼들이 쉬어 가는 주막도 있었다”고 귀띔한다.

“저쪽 수문 아래에 여객선, 중선(안강망), 소금배, 장작배 등이 드나드는 선착장이 있었지. 그때는 ‘나포 나루’라고 불렀는데, 객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 간만(干滿)의 차를 극복할 수 있는 잔교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았었거든. 그래서 입출항을 물때(밀물과 썰물)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도 배를 놓쳤다는 사람은 없었어. 그 시절에는 젊은이들도 물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

나포는 논산, 강경, 임피, 서수, 군산, 익산 등으로 나가는 길목이라서 국밥이랑 막걸리랑 파는 주막이 여기저기 많았어. 선착장 옆에도 보부상과 장꾼들이 쉬면서 허기도 달래는 주막이 있었지. 일하는 사람은 주모(酒母) 한 사람이었고, 마당은 넓지 않았지만, 방이 세 개나 됐다고. 주막은 봄이 약동하는 2월부터 바빠지기 시작했지. 조기 파시가 끝나면 뱀어잡이, 우여잡이, 물치(송어 새끼) 잡이가 시작됐으니까.”

그랬다. 소금배와 함께 중선들이 만선을 알리는 오색기를 펄럭이며 들어오는 날이면 객주와 보부상, 조기를 엮는 아낙들로 포구는 문전성시를 이뤘다. 아낙들의 수다는 신나는 주임새가 되어 주었다. 조기와 소금은 현금과 물물거래 방식이 병행됐다. 농민들이 수확한 곡식과 시골 농가에서 필요한 물건을 어렵해서 교환했던 것. 흥정을 마치면 소금과 엮은 조기는 보부상에 의해 순남미재 넘어 서수, 임피, 함열, 익산 등지로 공급되었다.



콩나물시루를 연상케 하는 1950년대 군산-장항 여객선 모습



군산시 나포면 장상리에서 임피 서수로 넘어가는 순남미재. 옛날에는 길이 꾸불꾸불했고 고개도 훨씬 높았다고 한다.

다시 생각해보는 64년 전 행운환 침몰 사고

금강은 지역 문물이 왕래하면서 다양한 역사를 만들어낸 시대의 젖줄이었다. 출퇴근길이자 학업의 길이기도 했다. 충남 부여, 논산, 강경, 한산, 화양, 서천, 대천 등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다수가 군산으로 유학을 왔다. 도선장(군산-장항)은 직장인과 통학생으로 매일 붐볐고, 방학이나 개학 시즌에는 군산-강경 여객선 승객의 절반 이상이 학생이었던 것에서 잘 나타난다.

강변 마을 사람들의 수많은 사연과 끈적끈적한 삶의 체취가 깃든 금강. 1953년 겨울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사고가 발생한다. 한국미곡장고주식회사(아래 미창) 군산지점 소속 여객선 행운환(幸運丸·40톤급)이 그해 1월 25일(일요일) 오후 3시 30분경 금강 하류 10km 지점(충남 화양면 와초리 앞)에서 침몰, 100여 명이 익사하거나 행방불명 됐던 것.

당시 군산-강경 간 정기여객선은 세 척.(행운환 2척, 금강환 1척) 금강환이 오전 운항을 결항하는 바람에 불어난 승객과 짐을 싣고 강경을 출발한 행운환은 성당, 칠산, 입포(갯계) 내성, 옹포, 나포 등을 지나면서 손님과 짐은 더욱 늘어났다. 정원 90명인 배에 250여 명을 태웠고, 쌀도 50가마를 선적한 상태였다. 대부분 희생자가 집에서 방학을 보내고 등교를 위해 군산으로 향하던 여학생과 유아, 임산부 등이어서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였다.

행운환 침몰사건 엿새 전 부산~여수 여객선 창경호가 다대포 앞바다에서 침몰하여 280여 명이 참사를 당했는데, 금강 하류에서 또다시 침몰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민심도 흉흉했다. 선장을 비롯해 미창 군산지점 과장, 계장이 줄줄이 구속됐다. 교통부장관이 성명을 발표하고 미창은 사과문과 함께 위령제, 피해자 보상 등을 약속했다.

그해 2월 2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침몰 3일 만에 선체를 인양하고 익사자 54명을 확인했을 뿐이었다. 그날까지 확인된 군산지역 희생자는 총 21명(60대 1명, 50대 2명, 40대 2명, 30대 3명, 20대 1명, 9~18세 10명, 2세 2명)으로 학생 및 유아가 절반을 넘었다. 희생자 중 가장 연장자인 60대는 나포면 장상리 수지마을에 사는 이기용(61)씨. 이사준 이사의 친할아버지로 군산에 사는 딸 집에 가다가 변을 당했다 한다. 아래는 이 이사가 전하는 당시 상황이다.

“선체 인양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갔지. 기다리는 것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참상뿐.... (한숨) 개흙으로 뒤범벅되어 누가 누군지 확인할 수 없더라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긴 턱수염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었어. 훼손된 시신을 목선에 싣고 집으로 돌아와 개흙을 씻어내고 힘들게 장례를 치렀지. 나포에만 희생자가 10명이 넘어 마을 전체가 초상집 분위기였지. 제사도 한날한시에 지내고.... 참담했던 그때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죽은 남녀학생들은 대부분 자취생이었지. 모두가 고달프고 가난했던 전쟁 시절 학생들은 하숙비 아끼려고 학교 근처나 선창가에 셋방을 얻어 밥을 해 먹고 학교에 다녔거든. 배에 싣고 있던 쌀 50가마도 학생들이 먹을 식량이었지. 현금이 귀한 시절이어서 나무(장작)도 집에서 가져다 불을 지펴 밥을 해 먹었으니까. 그래서



옛 선창장 자리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이사준 이사



바닥을 드러낸 금강 하류

침몰한 행운환에 장작도 실려 있었지. 배에 풍구도 싣고 있었던 모양이야. 그 풍구를 잡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학생도 있었거든.

행운환 침몰 사고 후 군산 재보선창에서 강경 다니는 배는 끊어버렸지. 나포 사람들도 일절 배를 안 타고 군산까지 걸어 다니거나 미군들이 사용하던 쓰리쿼터를 개조한 합승을 이용했어. 그 합승은 트럭처럼 지붕도 없었어. 그때는 그것도 감지덕지했지. 나포나 서포에서 군산으로 땔 나무를 싣은 장작배가 오갔는데 그것도 점차 끊겼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길도 참 좁았어. 소구루마가 겨우 지나갈 정도였으니까. 참, 모두 옛날 얘기네....”

이사준 이사는 “행운환 침몰 사고 때 목숨을 구해준 인연으로 양부모를 삼기도 하고, 먼저 탈출한 남학생이 강가로 떠밀려온 여학생을 구출해 훗날 부부가 된 경우도 있었다”며 “3년 전 세월호 참사 때도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최근 세월호가 물위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도 내가 유가족이 된 것처럼 마음이 아팠다”고 덧붙였다.



군산시 한국수어 통역센터 사무국장 김용태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군산시 한국수어통역센터는 1981년도 3월 설립한 (사)한국농아인협회 전라북도협회 군산시지부의 산하 기구로 2005년도 출범했다.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분야인 수어통역센터의 김용태 사무국장은 전북 수어통역센터 지원 본부에서의 근무경력만도 27년에 달하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올해 1월 군산센터로 발령받았는데 단정하면서도 조용한 말투에 밝은 표정만으로도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주는 인상이다.

수어(手語)는 독립된 언어
그간 농아(聾啞)장애인의 의사 전달 방식이었던 수화(手話)는 단순한 대화 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한국어와 동등한 하나의 언어 개념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맞춰 수어(手語)로 용어가 바뀌었다. 이는 정부에서 지난 2015년도 한국수화언어(수어)법을 통과시켜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또한 듣기와 말하기 장애를 가진 농아인이라는 명칭도 앞으로는 농인으로 바뀌 불려야 된다 한다.

현재 군산의 농아 등록인 수는 1,400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선천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유아기 때의 열병 등에 의한 후천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취학은 부모의 선택에 따라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서의 통합



반 교육으로 나뉘고 있는데 양자 간에 장, 단점이 있어 이를 서로 절충, 보완하는 교육 정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인다. 수어를 가르치는 대신 말하는 연습에 치중해야 한다거나 수어는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현실적 논쟁은 수어통역사들이 일반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정부 측에 꾸준히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한편 청각장애아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흔히 농아인은 성격이 고집스럽고 난폭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일반인에 비해 문해력이 약하고 지적 수준이 다소 떨어지다 보니 상대의 말에 대한 이해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일 뿐 타고난 성격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수어는 손동작으로 전달하는 언어이지만 대화 시 그 대화 내용에 맞는 얼굴 표정을 병행할 때 훨씬 전달력이 클 수 있다. 예컨대 기쁨, 놀람, 슬픔, 망설임 등 모든 감정 표현에 있어 얼굴도 그에 맞는 표정을 짓는다면 공감력이 배가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로서 이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군산지부와 센터의 문화공동체 사업

현재 군산지부에서는 어버이날 효도관광을 비롯하여 재활교육 일환으로 바리스타, 목공예, 가죽공예 등을 가르침으로서 자립을 돕고 있으며 보건소 연계사업으로 요가를 병행,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군산통역센터는 지부장 겸 센터장(최광순)과 사무국장(김용태)외에 3명의 수어통역사(홍영애, 허창기, 조한나)까지 5명의 근무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중 1명은 농통역사로서 문맹농아인(청각장애인)을 위한 통역을 맡고 있다. 센터에서의 통역 활동은 법원, 경찰서 등의 관공서를 비롯하여 사회 전 분야에 걸친다. 또한 올해부터 개별 심리 상담과 더불어 여타 시설 단체와의 프로그램 연계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 중이다. 작년의 경우 연인원 3,800명에 달하는 통역서비스가 제공됐고 지금도 하루 8~10명 정도 꾸준 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엔 병원이나 요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도 통역사들의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다.

수어 교육

따라서 센터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무료 수어 교육도 운영 중이다. 과정은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나뉘서 시행하며 주 2회 기준으로 2개월 반 정도의 과정이다. 개인에 따라서는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수강하기도 하는데 고급반을 마친 후 개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만큼 어려움이 뒤따라 완전히 익히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실제로 시각, 청각의 장애를 같이 가진 경우 더 특수한 고도의 방법이 요구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수어통역으로 사회적 소수자를 위해 기여함으로써 얻는 자아의 충족이나 성취감은 건전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토양이 되리라는 점에서 권장되어야 할 것이고,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대화이며 내 기분 못지않게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는 대화 방식은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를 만드는 기본으로서 인격적 언어문화의 정착을 앞당기는 바로미터가 아닌가 한다.

참고로 각종 공지사항이나 수어 관련 정보를 얻고 싶을 경우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군산농아인협회'를 치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군산시한국수어통역센터
군산시 구영1길138-2
T.063)462-022



좌로부터 홍영애 통역사, 김용태 사무국장, 최광순 지부장, 허창기 통역사, 조한나 통역사





새만금 골프존 스크린

안병운 대표

글 | 매거진군산 편집부

부안에서 태어났지만 유년시절과 학창시절을 수원에서 보냈고, 매제와의 사업을 계기로 군산으로 삶의 터전을 옮긴지 벌써 8년의 시간이 흘렀다.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는 성격은 아니지만 진중한 생각으로 대하고 마주하다보니, 어느새 군산은 또 다른 고향으로 다가와 있는 것 같다.

하루의 시작을 땀 흘리는 현장과 함께하면서 때때로 정적인 무언가를 배우며, 스스로 몰입할 것을 찾았고, 우연한 기회에 골프를 배우게 되었다. 멈춰있는 공이지만 몰입하지 않으면 공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더 많은 생각과 도전을 이끌어 내는 듯 했다.

골프라는 운동은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조금 더 적극적인 성격을 갖도록 해 주었다. 낮에 활동하는 업무가 용접기 사업이다 보니 때론 골프라는 운동을 하는 것에 조금은 의아해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마 사회의 작은 통념 일 듯싶다.

골프 연습장을 놀이터처럼 꾸준히 다니며, 마음에 맞는 형님들과 아우들이 주변에 함께 했고, 열심히 노력한 만큼 실력이 향상되기 시작한 어느 시기! 새만금 골프 연습장의 신현철프로가 시야에 성실한 모습으로 신뢰감을 주며 눈에 띄었다.



GOLFZON

새만금 골프존



심성도 바르고,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항상 관심으로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듬직했고, 무엇보다 믿고 따라 주는 모습에서 스크린 사업에 동참하며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수도권 못지않은 멋진 인테리어로 시작하기엔 리스크가 있어 한 동안 고민을 했지만, 친구 최영규사장의 긍정적 지지를 받아 용기를 내어 스크린골프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사실, 사업 계획에 대해 주변의 많은 지인들은 우려했다. 공단이라는 특성상 교통편의 시설이 불편해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는 조언이 많았고, 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공단이라는 특성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름 자신이 있었고, 신현철프로 역시 열정적으로 함께 할 것을 알았기에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2015년 8월! 욕심껏 화려하게 꾸미지는 못했지만, 즐기며 친화 할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을 모티브로 스크린을 오픈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부지런한 아내의 도움이 항상 큰 힘이 된다.

용접기 사업이 바빠 스크린 가게에 늦게 가기도 하고, 때때로 장거리 출장으로 자리를 비울 때도 많은데, 아내는 묵묵히 자리를 대신 지켜주고 있다. 그 외에도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먼 곳에서 항상 응원해 주는 수원의 친구들과 공단에서 근무하며 관심으로 찾아주는 고마운 아우들, 모임의 멤버들이 있기에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본다. 또한, 매출에 연연해하기보다 새만금 스크린을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정성을 기울여 주는 신현철프로에게도 항상 고마운 마음이다.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배려와 깊은 이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골프를 레슨해 주는 신현철프로가 있어 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한 것이라고.

동호회를 운영하는 것도 준비하고 챙겨주는 모습에서 골프 레슨 뿐만 아니라, 삶도 따뜻한 프로의 모습으로 엮여 가는 것 같아 때때로 흐뭇함을 느낀다. 아직은 초보자가 많은 동호회이지만 항상 열심히 참석해 주는 모든 동호회 회원들에게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초대회장을 맡아 주신 문조영 대표, 김관진 부회장이 있어 즐겁고, 돈독한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고, 회원들과의 교류 역시 타 동호회 못지않기에 바쁜 하루를 정리하고 피곤함을 잊은 채, 매일 찾아주는 회원들과 웃음이 있고 어려움도 함께 나누는 삶과 골프 이야기가 있는 스크린으로 발길을 옮겨본다.

새만금 스크린골프
군산시 내초동 156-16 (새만금골프연습장 내)
예약 : 063-462-2523

(유)삼호용접기
전북 군산시 내초동 185-5
063-468-3505



“아코디언 배우러 오세요~”

한국생활음악협회 군산시지부
정인숙 지부장

글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풀무로 바람을 만들어 리드를 진동시켜서 멋진 소리를 내는 아코디언. 나이 든 세대에게 그 아코디언은 옛 유랑극단을 떠올릴 만큼 향수를 자극하는 악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명맥을 잃어 지금은 우리 주변에서 연주를 듣기 힘든 악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존의 연주자들에 의한 전수(傳授)와 보급이 등한시됨으로써 관심이 떨어진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아코디언이 부활하고 있다. 지곡동 소재 한국생활음악협회 군산시지부의 정인숙 지부장은 본래 피아노 전공자로서 오랫동안 피아노학원을 운영하기도 했지만 현재도 실용음악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정통 음악인으로 최근 군산 최초 아코디언 교실을 열어 열정적으로 후진을 양성하며 저변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인데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수강생들로 아코디언 교실엔 나날이 신바람이 불고 있다.

아코디언은 어떤 악기인가

다 알다시피 아코디언은 가슴에 안고 주름상자를 양손으로 신축시켜 리드로 소리를 내게 하는 기명악기이다. 반음계도 자유로이 연주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3옥타브 반에 이르는 피아노 식 건반이 있고 왼쪽에는 베이스라는 저음열과 코드버튼을 나열, 동시에 반주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일명 손풍금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아코디언은 반주기(伴奏機)가 있어야만 연주할 수 있는 일반적 악기와 달리 멜로디와 반주가 동시에 이뤄지는 독자성으로 인해 어느 장소에서나 독주나 합주가 가능함으로써 반주기가 필요 없는 악기라 할 수 있다.

아코디언의 기원과 종류

아코디언은 1822년 독일의 F.부슈만이 최초 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크게 ‘다이하토닉(Diatonic)아코디언’과 ‘크로매틱(Chromatic)아코디언’으로 분류된다. 다이하토닉 형은 오른손으로 몇 가지 조의 온음계를 연주할 수 있고 한 버튼으로 두 개의 음을 낼 수 있는 반면에 크로매틱 형은 한 버

튼이나 건반으로 하나의 음만 낼 수 있으며 반음계의 12음 모두를 연주할 수 있게 된 아코디언으로서, 이것은 다시 버튼아코디언과 피아노아코디언으로 구분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선호되고 있는 아코디언은 거의 크로매틱 형의 피아노 식 아코디언이다.

아코디언의 장점

최근 아코디언의 여러 장점이 알려지면서 시나브로 교습 희망자가 늘고 저변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데에는 체험을 통한 즐거움과 부수적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근래 들어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로 은퇴 세대들이 높으로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코디언은 애잔함을 담은 독특한 음색으로 향수를 자극

하며 무기력과 자아상실감이 클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 줄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동호인들과의 연대를 통한 사회 봉사활동 참여는 커다란 보람과 자긍심을 갖게 해줘 성취감을 맛볼 수 있고, 소심한 성격을 자신감 넘치는 능동적 성격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배운 것을 남에게 가르치면서 남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즐거움으로

젊음을 되찾는 느낌이 크며, 어깨근육과 손가락 운동을 통한 뇌의 활성화로 노화를 늦추고 치매예방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여러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토록 여러 장점과 더불어 폐활량과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도 아코디언의 저변확대는 단지 시간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정인숙 지부장의 열정 교습

군산은 전국은 말 할 것없고 전북 권에서도 타, 시도에 비해 아코디언의 불모지라 할 만큼 저변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정 지부장이 군산에 교습실을 연 것도 그런 연유로서 배우고 싶어도 가르치는 곳이 없어 타 시,도에까지 먼 길을 가야 했던 교습 희망자들을 위해 자비를 들여 교습실을 낸 것이다.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도 미인 형의 정 지부장은





특히 중, 장년 이상의 실버세대를 위해 아코디언만큼 좋은 악기는 없다는 이론으로 초보자들도 배우기 쉽도록 친절과 열정으로 세심히 지도함으로써 원생들에게 인기가 높다. 아코디언은 어려운 것이라는 막연한 선입견으로 접근을 못하는 사람들에게 건반 배열이 피아노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 피아노보다 빠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하는 정 원장. 악보를 볼 줄 아는 경우엔 쉬운 곡으로 6개월 정도, 악보조차 모르는 완전 초보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1년 정도면 무대에 설 정도의 실력을 갖추 수 있다 한다. 물론 입문 초기에는 음계 익히는 것부터 출발, 동요부터 연습하다가 점차 쉽고 느린 곡으로 진전한다. 숙련자들의 경우엔 ‘안동역에서’ ‘대지의 향구’ ‘봄날은 간다’ ‘찔레꽃’ over and over 등 비교적 빠르고 난이도가 높은 곡들로 나가게 되는데 악기는 반드시 본인이 구입해야 된다. 연습용 중국산은 몇 십 만원, 개인 소장용의 경우 고급품은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연주 수준과 능력에 맞춰 구입하면 될 것이다.

정 원장은 앞으로 제자들과 거리 공연 팀을 만들어 시키는 대로 사회복지시설 위문 공연 봉사도 계획하고 있다. 소외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 층에게 다양한 음색으로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아코디언은 그 어느 악기보다 환영받기 때문이다. 엄마의 DNA를 이어받은 듯 아들과 며느리 부부도 각기 바이올린과 피아

노를 전공, 음악학원을 운영할 정도로 세대를 이어 음악가정을 이룬 정 원장은 20년 경력의 골프와 볼링을 취미로 즐기고 있다는데 앞으로 아코디언이 많이 보급되어 오케스트라를 비롯하여 거리 공연에까지 아코디언 연주가 일상화 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기며 환한 미소를 보여 준다.

제자들의 이구동성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취재 말미에 제자들에게 수강 소감을 부탁하자 나운동에서 ‘그시절 그노래’라는 옛 가요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소이영 씨는 “평소 아코디언 음색이 좋아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었으나 학원이 없어 속만 태우다가 작년 3월 정인숙 지부장님이 군산 최초로 교습실을 열었다는 것을 알고 막 바로 등록했다”며 “열성적인 선생님 모습에 반해 누구보다 열심히 배우고 있다”는 말을 들려주는가 하면 전종선 씨는 “백지 상태인 초보자들에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빠르게 지도하는 선생님은 누구보다 열정이 넘치는 분으로 자신도 배우는 재미에 빠져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라면서 “아코디언을 한 뒤로 급한 성격도 바뀌고 가족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화목해졌다”는 말과 함께 “이러한 장점을 주위에 널리 알리고 싶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동호인들과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고 싶다”는 의욕을 피력하기도 한다. 또한 이희철 씨도 “친구의 아코디언 연주를 듣고 감동받아 교습실을 찾았는데 무엇보다 선생님의 인상이 너무 좋고 친근감이 느껴

져 수강을 결심했는데 역시 배우기를 잘 했다”는 말을 들려주고, 수강 1년차인 박이옥 씨도 “정인숙 선생님은 외유내강 형의 성품으로 친절하고 세심하게 가르치면 서도 그 열정만큼은 누구 못지않을 만큼 대단해 제자들도 자연히 열심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면서 “언젠가 본격적인 공연 팀이 구성되어 대중 앞에서 연주 할 날이 올 거라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즐겁다”는 말을 들려 주기도 한다.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여가가 늘면서 인간들의 삶은 점차 문화예술을 접하는 가운데 자아 충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형성되고 있다. 문화예술이 주는 마음의 평온과 감성의 힐링은 그 자체로 삶의 위안과 활력소가 되기 때문일 터다. 나이 핑계만 대며 하릴없이 소일하는 사람에겐 인생이 무의미하고 지겨워짐으로써 이미 스스로 노인의 대열에 서고 있다 할 것이나 나이를 의식치 않고 뭔가 취미를 찾고 배우려는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언제나 젊은이라는 말이 있다. 결국 나이의 기준은 의미 없는 출생년도가 아니라 몇 살의 생각과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코디언의 멋진 음률과 화음 속에서 자신을 조금이라도 젊게 가꾸고 동호인들과 인간관계를 다지며 보람과 재미를 느끼면서 살고 싶은 이들에게 한국 생활음악협회 정인숙 지부장의 아코디언교실이 그 역할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정인숙 아코디언 교실
(기초반, 고급반, 취미반, 성인반)
군산시 나운동155-6 롯데4차APT.상가2F
T.063)466-5788 M.010-2477-8788





구 히로쓰가옥 다실 입구에 놓인 츠쿠마이의 정원

군산 '히로쓰가옥' 이걸 알면 더 잘 보인다.

김옥분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가 전하는
일본식가옥 구조와 기능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군산시 명산동 사거리에서 월명터널(월명공원) 방향으로 걷는다. 양반걸음으로 몇 발짝 때니 군산향쟁관이다. 길 건너는 동국사(東國寺) 입구다. 봄기운을 만끽하며 잠시 눈요기를 한다. 조금 더 걸으니 월명성당이다. 그리고 그 뒤가 현대오솔 아파트다. 이곳은 일제강점기 조선주조 공장, 광복 후에는 청주(淸酒)로 명성을 떨쳤던 백화양조가 있던 자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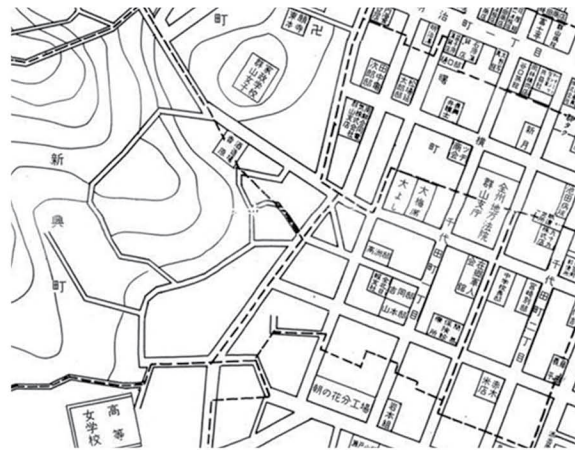


고개를 돌리니 군산여고다. 도로를 등지고 구영1길로 들어선다. 다양한 형태의 가옥이 밀집된 고즈넉한 골목이 시작된다. 1~2분 걸었을까. 붉은색 담장과 푸른 대문이 이색적인 히로쓰가옥(국가등록문화재 제183호)이 얼굴을 내민다. 색 바랜 벽돌담과 낡은 서양식 목조주택이 조화를 이룬다. 일제 잔재인 허름한 나가야(長屋) 건물도 끼어든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골목길, 과연 시간여행 으뎌 코스답다.

신흥동 일대는 부유층 거주 지역, 정말일까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구 히로쓰가옥)은 부 협의회 의원이며 포목점을 운영하던 ‘히로쓰게이사부로’가 지은 주택으로 이 주택이 위치한 신흥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군산 시내 유지들이 거주하던 부유층 거주 지역이었다.” (히로쓰가옥 안내문 옮김)

1954년~1956년, 존 콘스박사가 찍은 군산 시내. 아래는 군산여고 그 위가 신흥동 산동네다.



1935년 제작한 군산부 지도. 왼쪽은 신흥정(신흥동), 오른쪽은 천대전정(월명동)이다.

안내문이 말하듯 신흥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부유층 거주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930년대에 제작된 지도에도 잘 나타난다. 지금의 구영1길을 경계로 신흥동은 신흥정(新興町)이었고, 월명동은 천대전정(千代田町) 거리였다. 그중 신흥정은 지도에 구릉지로 표기되어 있다. 주요 건물도 보이지 않는다.

옛날 신흥동은 으스스한 산동네였다. 차독산과 이웃해 있었으며 ‘절골’로 불리기도 하였다. 자그만 절(寺)이 있었고 암자 비슷한 신당과 점집이 여러 곳 있었다. ‘절골’이란 지명도 그래서 생겨났다. 밤나무가 많아 밤나무골로 불리기도 하였다. 광복 후에도 가난뱅이들이 사는 달동네였다. 한국전쟁(1950~1953) 때는 주변에 피난민촌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반면 천대전정은 평지에 조성된 주상복합단지인 것에서도 신흥정과 구별된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현 월명동사무소) 앞길을 경계로 1정목(丁目) 2정목(丁目)으로 나뉜다. 이곳에는 재향군인회 군산 분회를 비롯해 우편소(우체국), 신문사, 변호사 사무실, 토목회사, 병원, 약국, 잡화점, 양복점,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다. 이렇듯 히로쓰가옥은 부자 동네(일본인 거리)와 가난한 산동네(조선인 마을) 사이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히로쓰가옥 건물주, 건축 시기 등에서 오류 발견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구 히로쓰가옥): 이 가옥은 일본정령기에 군산 영화동에서 포목상을 하던 일본인 廣津繼伊三郎(히로쓰 게이사부로)이 지은 가옥이다. 히로쓰는 대지주가 많았던 군산에서는 드물게 상업으로 부를 일구고 임피 인근에 작은 농장을 경영하면서 부협의회 의원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 가옥은 일본식 주택의 특성이 잘 보존되어 있다.” (후지이 가즈코 교수 연구서에서, 2012년 이전 안내문으로 추정됨)

이에 후지이 가즈코(藤井和子) 교수는 구 히로쓰가옥에서 태어나 소학교 4학년 때까지 살았던 히로쓰(廣津) 손자(廣津昌平) 증언과 자신이 조사한 결과물을 정리한 연구서 〈식민지 도시 군산의 사회사-신흥동 일본식가옥(구 히로쓰가옥)과 히로쓰 家の 역사〉(2012년 10월)를 통해 오류 몇 곳을 지적하였다. 그 내용을 재구성했다.



구 히로쓰가옥 입구

▲ 히로쓰가옥을 지은 사람(건물주)은 히로쓰 게이 사브로(廣津繼伊三郎)가 아니고 히로쓰 기치사브로(廣津吉三朗·1878~1949)이다. 기치사브로는 일본 야마구치현 쿠마게군 신치(히라오초)에서 태어났다. 청일전쟁(1894~1895) 때 조선어 통역관으로 평양에서 근무하였다. 러일전쟁(1904~1905) 때는 첩보원으로 징병되어 만주와 북한 지역에서 활약하였다.

▲ 기치사브로는 군산에서 포목상을 한 일이 없다. 미곡상을 했다. 러일전쟁이 끝나고 군산에 정착하여 무엇을 할까 궁리할 때 조선인 대지주 김(金)씨가 쌀 중매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해서 미곡무역업을 시작했다. 상호는 <길·廣津吉三朗商店>이었고 점포와 자택은 전주통(현 영화동)에 있었다.

▲ 히로쓰가옥은 1925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다. 1931년 대도(大島) 은행장의 간절한 부탁으로 토지(현 히로쓰가옥 자리)를 매입 3년 남짓 공사 끝에 1935년 완공됐다. 이때 전주통(영화동)에서 신흥정(히로쓰가옥)으로 이사하였다.

▲ 농장이 있던 곳은 임피 인근이 아니고 성산면이다. 현재도 성산면에는 히로쓰 가(家)에서 경영하던 농장사무소 건물이 남아 있다. 그리고 작은 농장이 아니라 큰 농장이었다. 농장 경영은 1934년경 시작하였다.

후지이 교수는 “한국에는 광복(1945) 이전 히로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설명문에 이런 오류가 생긴 것”이라며 “월명회(군산에서 태어나 학교도 다니고 직장에도 다녔던 일본인들 모임) 회원들의 증언으로도 히로쓰 家의 농장 규모는 결코 작지 않았다”고 부연한다.

연구서에 따르면 히로쓰가옥은 처음 건축 당시 방 한 칸에 한국식 온돌을 설치했다. 전기도 최신식 설비를 갖췄다. 2층에 올라갈 때 계단 아래에서 전등 스위치를 켜고 2층에서 끄는 방식이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별채를 중축하고자 공간을 많이 확보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으로 10년밖에 살지 못했다. 가방 하나만 들고 돌아갔는데 그마저도 부산항에서 승선수속을 밟다가 도둑맞는다. 빈손으로 힘들게 귀환한 기치사브로는 1949년 1월 고향에서 병사한다.

기치사브로 딸과 손자가 10여 년 전 군산을 방문하였다. 그들은 신흥정 집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너무도 변해버린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정원에 있던 돌다리, 소나무 등이 없어지고, 흰색 담장이 붉은색으로 변했으며 대문도 나무 본래 색이었는데 파란색이었기 때문이었다. 인력거를 이용하던 집 앞 도로도 무척 좁게 느껴졌다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본 히로쓰가옥

김옥분(59) 군산시 문화관광해설사(아래 해설사)를 만났다. ‘희망 퇴움 대안 학교 일어 강사’이기도 한 김 해설사의 도움을 받아 히로쓰가옥 정원과 실내 구조, 기능 등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다. 아래는 그의 해설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히로쓰가옥은 여섯 개 방과 부엌, 화장실 등이 복도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헤이안(平安) 시대 신덴츠클리(寢殿造) 주택양식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시이레(불박이장), 도코노마(장식대), 고타츠(脚爐), 가미다나(神壇) 와시츠(和室) 등은 막부(幕府) 시대 쇼인츠클리(書院造) 양식이 복합된 구조이다. 비스듬한 객실, 현관, 아마도(雨戶) 덧문 특히 일본인이 건축주임에도 방에 한 국식 온돌이 설치된 게 이 건물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다미(畳) 일본 전통 주거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일본에 다다미 문화가 정착된 이유는 겨울에 냉기를 막아주고

여름에 습기를 빨아들이는 조절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해서 다다미와 탄성이 강한 나무를 바닥에 사용했는데 화재에 취약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도코노마(床間) ‘바닥에서 한 단 높였다’는 뜻이기도 하다. 막부시대(16세기), 불교의 한 종파로 참선을 통해 불도를 터득하려는 선종, 종교문화의 세속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정원이나 비대칭 선반 문화도 이와 동일하다.

오시이레(押入) 실내가 비좁고 지진이 발생했을 때 안전을 고려한 수납공간이다. 이불과 옷가지 등을 압축하여 접어서 보관하는 곳이다.

이로리(囲爐裏) 취사용 도구이다. 나무틀에 화로를 밑에 넣고 이불을 덮어 발과 손을 넣어 몸을 녹이는 고타츠(脚爐)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현대에는 적외선 램프가 달린 전기 고타츠를 일반 주택에서 난방기구로 사용한다. 우리 집 거실 탁자에도 30년 전 일본에서 쓰다가 가져온 고타츠가 놓여있다.



김옥분 문화관광해설사가 히로쓰가옥 내실(안방)을 가리키고 있다.

가미다나(神壇) 불상과 신단을 모시고 참배와 예불을 올리는 공간이다.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남쪽이나 북쪽의 밝고 높은 조용한 곳에 설치한다. 참배는 손과 입을 행구고 재물을 올린 후 신전에 앉아 인사하고 손바닥을 두 번치고 묵례하고 물러선다.

츠쿠바이(蹲踞) 다실(茶室) 입구에 놓인 손 씻는 그릇을 말한다. 차도에 초대받은 손님이 이곳에서 손과 입을 행구고 마음을 정돈한 뒤 징검돌(飛石)을 밟고 좁은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다. 일본의 차 문화에서 예를 갖추는 도구라 할 수 있겠다. 동국사 종탑 앞에 놓인 수수발(水手鉢)과는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수목(樹木)과 괴석, 인공 연못, 일본식 석탑 등으로 조성된 정원에서도 일본 문화의 독특한 발상이 엿보인다. 자연을 압축하여 인간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경관이 빼어난 월명산(105m)을 배경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 토속 신앙과 불교의 상징을 정원 원리에 접목하고 구체적으로 조형화한 것에서도 느낄 수 있다.



구 히로쓰가옥 안방 모습(2011년 4월)



시간여행 으뜸 코스로 꼽히는 군산시 구영1길(구 히로쓰가옥 앞길)



“국민 여론 경청하는 청렴한 대통령 뽑아야죠!”

[현장] 군산 전통시장 상인들,
“최순실 국정 농단 반면교사로 삼아야”

글 | 조종안(시민기자)
chongani@hanmail.net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아래 현재) 재판관 8명은 국가가 제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을 만장일치로 선고했다. 곧바로 이어진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92%가 현재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야 정치권도 승복, 통합, 치유의 메시지를 내놨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1600만 개 촛불이 새로운 역사를 쓴 날로 기록될 2017년 3월 10일. 그날 이후 전북 군산 거리에는 ‘국민이 이겼습니다!’란 문구가 들어간 환영 현수막이 나부꼈다. 어느 커피 전문점은 출입구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기념해 커피를 세일 판매한다는 안내문을 내걸었다. 또한, 많은 시민이 가족·친지와 축하 전화, 축하 문자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현재 최후변론 서면 진술에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모아 지금의 혼란을 조속히 극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판결 이틀이 지나도록 침묵했다. 12일 저녁 청와대 관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손을 흔드는 등 모순된 언행으로 국민을 실망시켰다. 특히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메시지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말한 대목은 자기모순의 극치였다.

기자는 지난 1월 하순 군산의 전통시장(신영시장, 공설시장, 역전시장 등)을 취재했다. 당시 상인들은 불경기의 첫 번째 원인으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탄핵 정국)을 꼽았다. (관련 기사: 설 대목은 옛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뉴스를 시청하는 군산 전통시장 채소가게 주인



생선건조장에서 토론하는 양병우, 백근상, 서상준 씨(오른쪽부터)

말, “나라가 뒤숭숭하니 사람들이 안 나와”) 지방의 소도시 전통시장 민심 조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같은 지역 현안보다 탄핵정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통시장에서 만난 사람들, 탄핵에 대해 다양한 반응

지난 11일과 13일에도 군산 전통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에 따르면 2017년 설 대목 매출은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11일 현재 멸치, 김 등은 지난 대목장 때보다 20% 올랐고, 각종 나물(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시금치 등)

과 굴갑, 밤, 대추 등은 비슷했다. 홍어, 조기, 아귀, 주꾸미 등 주요 어종은 20%~30% 하락했다. 생선가게 30년 경력의 최강복(65)씨는 하락 이유를 날이 풀리면서 어선들이 계속 출어하고, 설 대목 때 팔다가 남은 재고량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검 수사와 현재 발표,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사저에 도착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전통시장 상인들은 “당연한 결과다”, “좀 안 됐다”, “측은하다”, “실망했다”, “촛불이 태극기를 이겼다” 등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다. “부모(박정희·

육영수)가 모두 비명횡사했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여성 대통령이어서 동정심이 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로 바뀌었다”는 소리도 들렸다.

시장 상인들이 이용하는 생선건조장에서 만난 양병우(71·건어물 가게 주인)씨는 박 전 대통령을 태극기에 비유하며 “박근혜 탄핵은 촛불이 태극기를 이긴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에도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등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대통령을 광장에 모인 촛불의 힘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씨는 “민심은 천심이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숙하는 것이 도리다. 그러나 한편 불쌍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동정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백근상(68·건어물 가게 주인)씨는 “불쌍(쌍)은 절에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밝혀진 비리만 해도 용서받기 어렵다. 죄를 지었으니 합당한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무엇이 불쌍하냐”고 따지듯 되물었다.

김점순(77·반찬가게 주인)씨는 “박근혜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고생을 모르고 공주처럼 살아온 사람이다. 구중궁궐 청와대에서만 지냈기 때문에 바깥세상을 잘 모른다. 남편을 공양한 경험도, 자식 뒷바라지를 해본 경험도 없다. 고집도 왕고집, 아버지보다 세다고 들었다. 그렇게 자신의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이 어떻게 서민들 고충을 헤아릴 수 있겠나. 나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출마했을 때부터 걱정스러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50대 아주머니(소금가게 주인)는 “나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언행이 믿음성 있게 보였고, 우리나라 첫 여성 대통령이어서 기대를 했었는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 안타깝다”며 “탄핵을 당한 사람이 지지자들을 향해 여유롭게 웃고 손을 흔드는 걸 보면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러웠고, 화도 났다”고 말했다. 장을 보러 나왔다는 70대 할머니도 거들었다.

“옛말에 ‘목을 벨 죄인도 용서를 빌면 상투만 자른다’고 했어요. 잘못을 뉘우치면 사형수도 살려준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의 착한 심성을 표현한 속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근혜도 진정으로 사과했으면 탄핵은 피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비판 여론도 지금처럼 높지 않았을 거고요. 그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박근혜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사과문 하나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하고 의심했어요. 그때는 ‘측은지심’이 들기도 했죠.”

지난번 취재 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도 문제지만, 쪼꼬물 얼어붙은 소비 심리가 더 걱정된다’고 했던 생선장수 최강복씨. 그는 “군산수협 해망동 공판장 중매인과 부근 생선가게 주인들은 대한민국 경제는 세 사람이 망쳤고, 서민들의 자그만 희망마저 꺾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산 선창가 민심을 전했다.

“오늘(13일) 아침에도 해망동에 나갔다 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 경제는 박근혜, 최순실, 조윤선이 망쳐먹었다’며 불만을 쏟아내더라고요. 그중 구속된 조윤선 장관 있죠. 모두가 그 사람을 욕해요. 그 사람 1년 생활비가 5억이었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한 달 생활비로 4천만 원 이상을 쓴 셈이죠. 우리는 몇 년을 고생해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이니 나부터도 맥이 떨어져 일할 맘이 안 나죠.

더 큰 문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거나 억울하다고만 하지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특검이 밝혀낸 사실도 부정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특히 박근혜는 억울하게 엮였다고나 하고... 그러니 더 화나죠.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하는 걸 보면서 두 손 들었습니다. 이제는 역겨워서 얼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어졌어요.”



자신의 심경을 전하는 소금가게 주인 소이영씨



수송동 어느 커피 전문점 입구에 내걸린 안내문

상인과 고객 대다수가 청렴한 대통령 원해

전통시장 분식집에서 만난 직장인 최아무개(30대, 남)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현재에서 만장일치로 인용되던 날 우리 회사 사무실은 대규모 사업을 따냈을 때처럼 축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그는 “침체된 서민 경제도 살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할 대통령이 꼭 필요한데 합당한 야당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며 아쉬워했다.

50대 남자 손님은 “대통령이 청렴하고 정책이 투명해야 경제도 살아나고 적폐청산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다음 대선에서는 민의를 겸허히 받드는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는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해줄 정직하고 청렴한 후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서민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는 대통령은 국정도 투명하게 펼치기 마련이죠. 대통령이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정에 반영하면 그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사회 불안도 해소되고 죽었던 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과의 소통은 물론 적폐청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40대 손님은 “대통령 비선 실세가 경영권을 좌지우지하는 시스템에서는 기업을 100개 설립하고 공장을 120개 지어본들 국민의 혈세만 축내고 외화만 낭비할 뿐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 아무리 화려한 명분을 내걸어도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것.

탄핵정국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썰렁했던 ‘설 대목장’을 박 전 대통령이 물고 온 ‘재난’이라고 표현했던 소금가게 주인 소이영(60대)씨. 그는 현재 판결이 있던 날 고향에 사는 사촌 동생이 축하 전화를 해왔으며 그동안 느낀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탄핵당하던 날(10일)은 정신이 없었을 것이니 그렇다 치고, 이들이 지나도록 아무 말이 없었죠. 청와대를 나오던 어제(12일)는 뭐라고 사과하는지 궁금해서 TV 속보를 주~욱 지켜봤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사저 앞에서 기다리는 지지자들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손을 흔드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박근혜)가 탄핵 당하던 날 친박 집회에서 사망자가 3명이나 발생했는데 웃다니요. 박사모 회원은 아니지만 배신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날도 춥고 그래서 촛불집회도 몇 차례만 하고 그만두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그게 아닌

겁니다. 나이 좀 먹었다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는 애들처럼 성조기를 흔들면서 악다구니를 쓰질 않나. 최순실도 박근혜도 뉘우치는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억울하다, 아니면 책임을 떠넘기는 말만 하고, 그러니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다가오는 5월 대선에서는 거짓말 안 하고 국민 여론을 경청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대다수는 5월에 치러질 대선에서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국정을 투명하게 펼칠 청렴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침체된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킬 대통령, 국민 여론을 존중하고 우선시하는 대통령,

강대국(미국, 중국, 일본)에 당당한 외교를 펼칠 대통령, 양극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대통령, 남북교류 활성화로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통일 초석을 다질 대통령 등을 바라고 있었다.

기자가 만난 시장 상인과 고객은 모두 40여 명. 박근혜 전 대통령을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불구속 수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중 세 사람은 다음 정부는 특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정비(한반도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부연해서 눈길을 끌었다.

덧붙임: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올랐습니다.



강성욱 군산시의회의원이 내건 환영현수막

■ 군산시, 시간여행축제 발전방안 세미나 개최!

전국의 축제·관광전문가 9명 참여 열린 토론회 펼쳐
시간여행축제의 전략적 육성 방안과
대표콘텐츠 발굴 등 집중논의

군산시는 지난 3월 31일 장미갤러리 공연장(군산 장미동 소재)에서 9명의 축제·관광 전문가 패널과 군산시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인사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산시 간여행축제의 새로운 방향성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는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군산시 간여행축제가 향후 군산시간여행마을을 중심으로 한 관광활성화를 이끌어갈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축제의 전략적 육성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선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의 개념을 갖춘 난장 개념의 프로그램 도입 필요성(오순환 교수 용인 대학교 문화관광과) ▲근대역사의 사건과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안(이훈 교수 한양대학교 관광학부) ▲환경 친화적 축제, 슬로우 라이프 등의 반영을 통한 문화관광축제로의 도약(지진호 교수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최영기 교수(전주대 관광경영학과)를 비롯한 6명의 전문가 패널들은 각각의 주제발표에 따른 지정 토론과 함께 전반적인 축제 발전과 평가대응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며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아울러 세미나에 참석한 문동신군산시장은 “군산시가 지닌 역사를 담은 시간여행축제야말로 타 축제에서 볼 수 없는 독창성과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며, “군산시간여행축제가 명품 축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가 가득한 찾아오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렛츠런드림센터 자유공간” 공모사업 선정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김진호 센터장)은 여성가족부와 한국마사회 렛츠런재단에서 주최하는 ‘2017년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 렛츠런드림센터 자유공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한 사업으로 전국 202개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중 11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의 자유공간 명칭은 ‘꿈을 디자인 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렛츠런 꿈: D’로 정해졌으며, 이번 공모 사업비는 ‘렛츠런 꿈: D’의 설치 리모델링비와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계발, 자격증지원, 스터디 동아리 등의 프로그램운영비에 사용될 계획이다. 김진호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센터장은 “렛츠런드림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산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걸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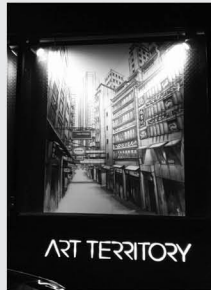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순금 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들이 미래의 인재로 성장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으로 군산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전문적 상담과 체계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검정고시 지원, 직업·진로개발, 학교 밖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 예술가, 개복동과 通하다' 아트 테리토리 전시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에서 5월 29일까지
이여운 작가 작품 전시회

군산시민예술촌(촌장 박양기)은 지역예술인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공간인 야외갤러리에서 '아트 테리토리'전이 올해 첫 번째 문을 연다고 밝혔다. 올해 작품전시는 개복동(예술인의 거리 일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 안에 '사람'을 중심으로 미학적인 공간과 밝고 어두운 내면의 시간을 발견하며 연결해가는 작업을 작품으로 구체화하여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와 지역작가의 작품으로 총 5회에 걸쳐 전시될 예정이다. 이번 '아트 테리토리'의 첫 전시작은 '이여운 작가(홍익대학교 미술학과 박사)의 『빌딩산수』라는 작품으로 도시가 가지고 있는 삭막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따뜻한 삶을 상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3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2달간 전시될 예정이다. 김봉곤 문화예술과장은 “수준 높은 작품들이 아트 테리토리 전시회를 통해 전시되어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아트 테리토리'는 군산의 원도심(개복동)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미술, 사진 등의 작품으로 표현하여 예술인의 거리 입구(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를 장식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 하반기 레오다브의 작품 “낙서, 역사가 되다”를 시작으로 관광객들과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왔다.



■ 군산시, 도시재생사업 시 전역으로 확대 추진

지난 29일,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 개최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지난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연구원과 체결한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를 가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월명동, 영화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올 연말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시 전역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진단과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보고회에서 국토연구원 박소영 책임연구원은 그동안 군산의 성장을 견인했던 대규모 산업단지와 구도심 상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지역별 자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보고회에 참석한 문동신군산시장은 군산의 원도심은 근대라는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으로 최근 새만금 개발사업이 진행됨에도 군산과 분리된 느낌이 들고 있음을 지적하고 본 용역에서 원도심과 산단,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했다.



■ “어르신들의 목소리 크게 들겠습니다”

군산시 복지지원과, 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27일 군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신성호)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노인복지 현장 행정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 및 노령 인구의 사회활동에 대한 필요성 등 관내 노인복지 현황과 복지관 운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복지관 기능보강을 위한 추경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성호 노인종합복지관장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노인복지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하여 총 45개 사업에 47억여 원을 투입, 일자리제공 및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군산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군산시와 서천군 협업 행정 추진

유부도 일원 갯벌 세계자연유산 공동 등재 추진 위한
실무회의 개최

군산시와 서천군이 유부도 일원 갯벌 약 30km를 2019년 세계자연유산 공동 등재에 행정력을 모으기로 합의하고 지난 29일 군산시청 상황실에서 군산시, 서천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서남해안갯벌등재추진단 등 관계자 20여 명이 모여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두 시군은 지난 13일 공동 등재 추진을 위한 1차적 협의를 마쳤으며, 유네스코 등재에 필요한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 소통을 꾸준히 실시하여 군산시와 서천군의 공동상생 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실무회의를 통해 두 시·군은 이번 등재를 계기로 도시 브랜드가치 상승 및 시너지 효과를 강화하여 금강권역을 글로벌 관광지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 연말 동백대교가 개통되면 두 지역은 10분내 생활권이 형성되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두 도시 간 협업 필요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이번 유부도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공동 등재 추진은 좋은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고 전하며, “이를 계기삼아 유부도, 금강주변을 연계한 발전방향 설정으로 서해 중부권의 행복한 지역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 회의를 통해 분야별 업무숙지 및 등재에 차질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부도 일원은 천연기념물 제326호 검은머리 물떼새를 비롯해 56종의 조류와 125여 종의 저서동물이 서식하여 세계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며, 군산시의 관할 행정구역은 약 8km 정도가 해당된다.



■ 자료 제공_군산시청 공보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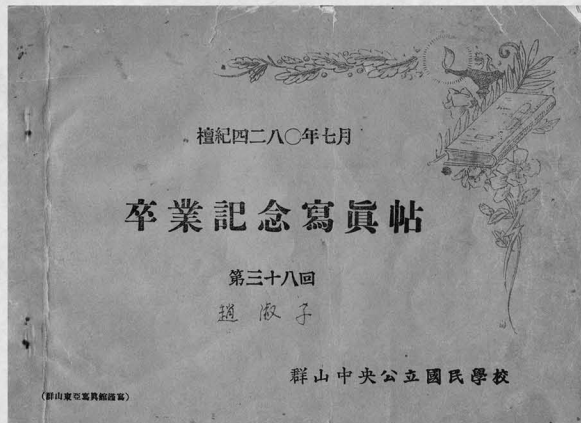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
T.063)450-4208 F.063)452-8159

70년 전 중앙초등학교 앨범은 어떤 모습일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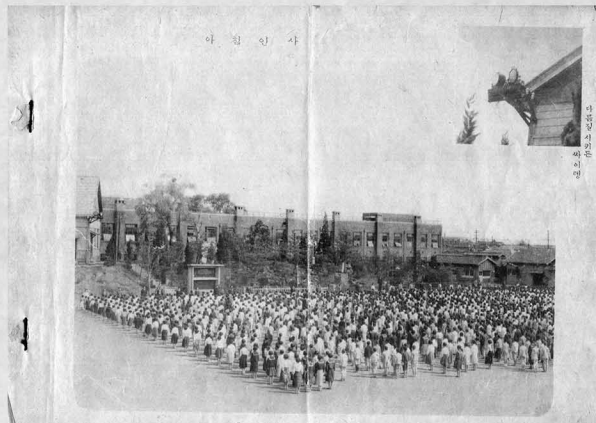
글 | 조종안(시인기자)
chongani@hitel.net



종아니의 발길 닿는 대로



70년 전 중앙초등학교 앨범 표지. 중앙초등학교는 '공립(公立)'으로, 필요할 때만 표기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민학교 앞에 '공립'을 붙여서 불렀던 모양이다.



아침조회 모습.

위는 단기(檀紀) 4280년(서기 1947년) 군산 중앙초등학교 '졸업기념 사진첩'(아래 앨범) 표지와 아침조회 광경이다. 정부 수립 전이어서 교육체제도 제대로 잡히지 않았을 때인데 앨범을 제작하다니 놀랍다. 군산 중앙초등학교는 '공립(公立)'으로, 필요할 때만 표기한다. 그런데 당시에는 국민학교 앞에 '공립'을 붙여서 불렀던 모양이다.

1945년 해방, 1948년 이승만정부 수립,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교과서 및 공책에는 '공산침략자를 쳐부수자!'는 글귀가 담긴 '우리의 맹세'가 실렸다. 그런데 좌·우가 극과 극으로 대립하던 혼란기임에도 북한을 배격하는 글이나 구호가 없어 눈길을 끌었다.

큰 누님이 앨범 임자인데 당시에는 어린 학생들에게 '앨범'이란 단어가 생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단기 4280년' 뒤에 '七月'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 당시에는 2월에 입학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니까 1학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제작된 게 아닌지 유추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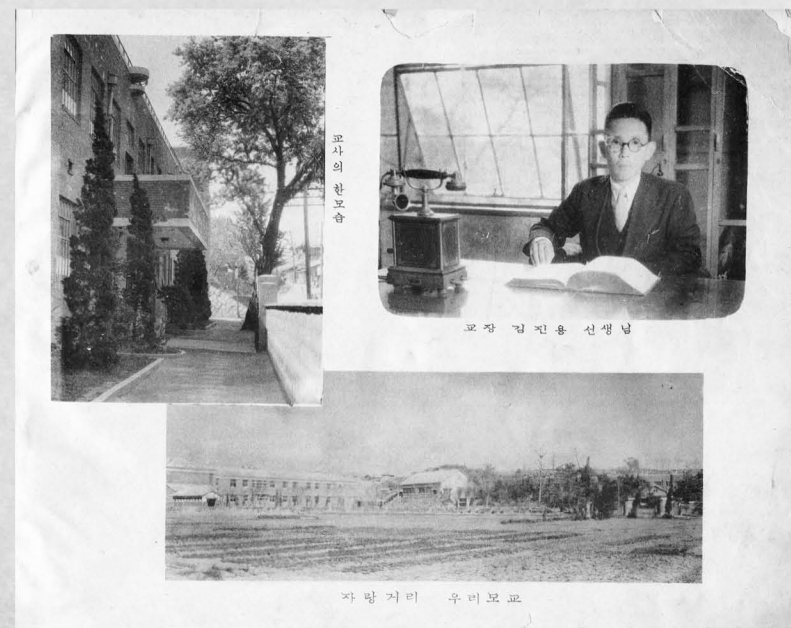
앨범 앞표지에 책과 꽃다발이 그려져 있어 동화책을 떠올리

게 한다. 고령으로 병석에 누운 환자만큼이나 늙고 병들어 보인다. 표지 여기저기가 해지고 터지고 누렇게 변하는 등 세월의 나이가 커커이 쌓여 있기에 하는 얘기가.

여학급 단체사진인데 머리는 하나같이 가위로 자른 단발머리요. 일본식 세일러복 차림과 검정 무명 치마에 저고리를 입은 학생이 대부분이다. 어쩌다 단정한 양장 차림 학생도 띄는데, 시대를 앞서나가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부잣집 딸처럼 보였다.

사진에는 훗날 군산여상 배구 선수로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바람이 나서 동네에 소문이 자자해 부모 애간장을 태우는가 하면, 주조장(술도가)을 경영하는 부잣집 만며느리로 들어가 젊은 시절을 평평거리며 지낸 여학생도 있다. 그들도 이제는 세상을 뜨거나 꼬부랑 할머니가 됐을 터인데, 세월이 도둑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졸업 횟수로 보이는 '第三十八回' 아래에 누군가가 '趙淑子'라고 적어놓아, 큰 누님 어렸을 때 이름이 '숙자'인 것을 알았고, 이름이 일본식이라고 해서 '정숙'으로 개명한 것도 알았다.



교장선생님 사진, 현관 사진과 학교 전경 사진과 함께 배치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 필체도 아닌 걸 보니, 담임선생님이 앨범을 나눠주려고 메모해놓은 것 같다.

교장과 선생님들 단체사진

교장 선생님 사진이 흥미로웠다. 권위주의가 판치던 1960년대를 전후해서 제작된 앨범 같았으면 교장이 집무실에서 위엄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 한 장만 들어갈 자리이다. 그런데 교장 인사말도 없고, 학교 전경과 현관 출입구 사진이 함께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앨범은 표지까지 13쪽으로 제작되었는데, 물자가 부족했던 때이니가 아끼려고 함께 넣었다고 할지 모른다. 일면 타당성도 있으나 지금이라고 넉넉한 것은 아니다. 신문용지 재료도 수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아무튼, 당시만 해도 계급이나 권위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던 시절로 짐작된다.

선생님들 단체사진을 본다. 패션이 60년대 초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고,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자유분방하다. 학교 정원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복, 양장, 양복, 노동복 등

▼ 선생님들 단체사진. 표정들이 대체로 자연스러워서 좋은데 사진 아래 '스승들의 모습' 글귀가 앨범이 제작된 시기를 잘 설명하는 것 같았다.



▲ 6학년 5반 단체사진. 누가 갈라놓기라도 한 것처럼 왼쪽은 일본식, 오른쪽 학생들은 한복 차림이다.

옷차림이 다양하고 포즈도 제각각이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중에는 80대 후반이나 90대 초반으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분도 여럿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줄 몇 분은 무릎에 손을 얹고 카메라 렌즈를 주시하고 있어 옛날 시골집 가족사진 냄새를 풍긴다.

뒤에 서 있는 분들은 팔짱을 끼거나 시선도 각자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바라보고 있어 미소를 짓게 한다. 가난에 쪼들리던 시절임에도 여선생님들 옷차림이 전통적이면서 자연스럽고 세련미가 넘쳐 마음의 부담을 덜어준다. (계속)

나이들면서 앞니가 돌출된다면?

지난달에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머리는 점점 희어지고, 어금니는 닳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 비가역적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백발노인이 검은 머리로 돌아갈 수 없고, 어금니가 닳아서 부서지고 있는데 처음 이가 닳을 때처럼 변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 치아에 나타나는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앞니가 점점 튀어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Anterior Flaring,' 앞니가 플레어 스커트처럼 넓게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전체 치아들은 어금니부터 앞니까지 사각형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고 말굽자석처럼 반원에 가까운 원호상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니는 원호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펼쳐지면서, 이는 돌출되고, 이 사이는 벌어지게 됩니다. 앞니는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를 안쪽에서 입술 바깥쪽으로 밀어내는 형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이가 들어가며 어금니는 마모되어 높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앞니가 위에 앞니를 점점 강하게 밀어내게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글로 설명하려니 매우 복잡해졌네요. 사진을 보시고 잠깐 생각해보시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20년 만에 만난 대학 친구는



알아볼 수 있지만 본인은 인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따라 속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물론 어금니 상황과 돌출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이가 벌어진 것이 보기 싫다면 벌어진 곳을 메꾸면 되겠고, 돌출이 많이 되었다면 치열교정을 해서 당겨 넣어야겠고, 어금니가 여러 개 빠지고 넘어지는 등 어금니가 많이 망가지고 무너졌다면 어금니를 회복시키는 게 먼저 해야 할 치료가 되겠습니다. 앞니가 돌출되고 나서 즉, 문제가 발생된 후에 해결하는 방법 말고 사전에 돌출을 최소화할 순 없을까요? 논리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아래 앞니를 1년에 0.1mm 씩 짧게 만들면(삭제하면) 됩니다. 완벽한

방법은 아니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8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단, 어금니가 건강할 때에 한해서입니다.

20살에는 앞니가 예뻐는데, 40살이 넘어가니 앞니가 벌어지고 돌출되어 보기 싫어졌다면 가까운 단골 치과에 가셔서 정확히 상태를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사람 좋은치과 이형재 원장
군산시 수송동 852-2 청담빌딩 3F
(063)466-2875
bolteck2@hanmail.net

웃을 때마다 눈부신 치아
상상만해도!

너무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항상 성심을 다해 진료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좋은사람 좋은치과가
되겠습니다.

Get a Smile.
겟 어 스마일 -
좋은사람 좋은치과에서
제공하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서비스.

**좋은사람
좋은치과**
Good People, Fine Dental

진료시간
● 평일:
오전 9:20 - 오후 6:40
● 토요일:
오전 9:20 - 오후 1:30
● 화요일 야간진료:
오후 8:00까지

add. 전북 군산시 수송동 852_2 청담빌딩 3F
tel. 063_466_2875 fax. 063_465_2922

프리랜서 사업자 탈세 대란

수도권에서 수 천명의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연루된 '프리랜서 탈세스캔들'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파만파 그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과 세무대리업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암암리에 묵인되어 온 부적절한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는 주로 보험설계사, 자동차영업사원, 학원강사 등 회사에 직원으로 소속되지 않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인적용역사업자들인데 이런 업종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할때 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1년간 지급받은 수당을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금정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수도권의 한 세무사가 수년간 수천명의 프리랜서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면서 쓰지도 않은 경비내역을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프리랜서 사업자들이 추가로 냈어야 할 세금을 오히려 환급받게 해준 것입니다.

예를들어 설명하면 보험설계사인 김여사가 1년간 1억원의 실적을 올렸다면 회사는 3%공제한 97백만원을 지급하고, 김여사는 다음해 5월에 세금을 정산하는데 김여사가 지출한 판촉물, 접

대비, 교통비들의 경비합계가 3천만원이라면 이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7천만원이고 여기에 김여사의 소득공제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6천만원이면 소득세율이 24%이므로 대략 1천만원정도의 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여기에 이미 회사에서 원천징수된 3백만원을 제외한 7백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는것이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김여사가 지출한 3천만원에 실제 지출하지도 않은 가공경비를 부풀려 계상함으로써 소득세를 거의 안나오게 줄여주고, 그 결과 7백만원을 납부해야할 김여사가 오히려 원천징수된 3백만원중 2백만원 이상의 금액을 환급받게 된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수도권에 일부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필자도 개업이후 많은 보험설계사, 영업사원, 유흥업소종사자들이 소득세신고 의뢰하면서 환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만, 경비금액이 부족해서 환급은 고사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하면 “다른 곳에서는 환급이 나오게 해주는데 당신만 추가로 세금을 내라”고 하느라면서 능력이 부족하거나 불친절한 세무사로 오해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프리랜서사업자의 경우 사업유지를 위해 차마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성질의 지출이 음으로 양으로 발생하여 실제 소득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공경비'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이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관행적으로 신고해준 세무업계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현행 법상 장부기장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장할 경우 납부세액의 무려 40%에 해당하는 무시무시한 가산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지키기 힘든 규정일 지라도 문제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가산세까지 추징되고 그 금액이 클 경우에는 조세범으로 형사처벌 받을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소득세신고를 과거 관행대로 안일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환급받게 해달라는 프리랜서 사업자분들의 요구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
전북 군산시 월명동 19-12
(063)466-5566, 1766

세무상담 및 고문 | 가장 및 신고대리 | 법인 및 개인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신고 업무 | 조세 불복 청구대리 | 벤처기업 확인 업무

돈이란 버는 것 못지않게 관리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세무사사무소**와 함께 하셔야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무문제는
나일환세무사사무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나일환세무사사무소는 양질의 **세금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언제든지 **조세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일환세무사 약력
군산제일고 / 전북대 행정학과 / 군산대학교 회계학과
국세청 79급 공채(15년 근무) / 전주세무서 부가가치세과 / 익산세무서 소득세과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군산세무서 재산세과(양도상속증여) / 공인중개사(14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군산지회 자문세무사 /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 세무분야 전문가
군산세무서 공평과세 위원회 위원

나일환세무사사무소

군산시 동국사길 5 (월명동 19-12)
tel. (063)466-5566, 1766 fax. (063)466-5605

임대차 계약관련 상담 및 부동산시장 동향



금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지역 공인중개사의 가치에 대해 서술할까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동네마다 부동산 중개업소가 즐비합니다. 아파트단지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특히 이들 중개업소가 밀집되어 있지만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이들 중개업자와 그다지 친분이 두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팔려고 하거나 전월세를 할 때 만 잠시 둘러 의뢰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다면, 또 최근의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 동향과 거래추이를 알고 싶다면 이들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친분을 두텁게 쌓아야 한다는 게 필자의 생각입니다. 좋은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인근 중개업자가 과연 도움이 될까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실제 중개업자(필자는 자격증 있는 공인중개사만을 지칭하는 것임)들을 잘 사귀어 두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파는 방법에는 경험 많은 중개업자가 개입된 경우이고, 하나는 매도·매수자가 서로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부동산 거래사고를 줄이고 투자성 높은 다양한 물건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믿을 수 있는 중개업자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했다면 매도자(임대인)와 매수자(임차인)는 각각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중개수수료를 아끼기 요량으로 초보자가 값싼 부동산만 찾아 생활정보지 나온 유명매물을 거래했다가는 까딱 잘못해 거래사고를 당하거나 사기 또는 이중매매를 당하는 경우는 허다할 수 있고 중개사가 취득·알선한 부동산에 하자가 있다면 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니 오히려 안전한 부동산거래 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통상 부동산 투자자나 학식 높은(?) 투자자들은 동네 길목을 지키며 부동산 중개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전문가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보아왔던 동네 '복덕방업자'를 떠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중에는 학력도 석사 박사들도 계시고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여러 가지 스펙과 경력을 겸비한 유능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역 공인중개사와 잘 사귀어 두면 여러 모로 유리한 점이 많고 마치 병이 나면 오랫동안 다녔던 의사에게 1차 진료를 받고 중병이 있을시 더 전문적이고 유명한 의사에게 내 병든 몸을 의탁하여 병을 고치듯이 우리네의 소중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어이 쉬이 아무에게나 의뢰 하겠습니까? 당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와 차 한 잔 마시며 모든 사항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눈다면 부동산 문제로 고민되었던 것들

은 차츰 풀리게 될 것이라 생각 들며 필자의 경우 필자를 방문한 분들께 현재 가장 큰 문제나 고민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단하고 먼저 본인의 속내를 잘 이야기 해주면 필자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내어 드리는 방향으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서로의 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다음호에서는 부동산 실무의 사례를 들어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독자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산 경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필자가 느끼는 체감온도는 아직도 봄이 오려면 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한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그윽한 평화 향을 피워내듯이 부동산을 통해 안정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현명한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유능한 공인중개사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부터 시작되는 행동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석사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
자산운용전문인력(부동산)
최인성 대표
군산시 조촌동896 (시청로10)
(063)452-0025 / 010-7758-4989

다시 물 밖으로 드러난 세월호

침몰한지 1073일 만에 세월호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인양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인양작업에 왜 3년이나 걸렸는지 의아하다?”, “진실을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위해 그동안 인양하지 않았다.” 등의 말이 나돌고 있고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기술적으로 워낙 어려운 작업이라 도중에 인양 방식을 바꾸는 등 시행착오가 많았다”고 해명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3월 25일 세월호가 물밖으로 완전 부양하여 목포신항으로 3월 30일경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해수부 3.27)

경향신문에서는 “정부와 한통속이 되어 인양작업을 방해한 구여권과 보수층의 행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3년을 미적거린 정부가 박근혜 탄핵결정 5시간 만에 세월호 인양을 전격 결정한 것만 보더라도 누가 걸림돌이었는지 알 수가 있다.” “향 후 선체조사와 함께 세월호 인양이 늦어진 이유도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고”, “진실이 두려워 고의로 지연하는 정부의 무도한 행태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고 사실을 썼다. (경향신문 이틀 만에 세월호 인양성공, 3년이나 끈 이유를 묻는다. 3.24)

반면 조선일보는 “지난 3년 세월호는

끊임없는 정쟁(政爭) 대상이었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가 안됐는지는 이미 낱알이 밝혀져 있다. 그 명백한 사실을 외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세월호 문제를 조사하라고 만든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 반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에 없다. 사실 할 일이 있을 리도 없었다. 참사와 아무 관계없는 ‘대통령 7시간’만 밝히겠다면서 분란만 키웠다. 고 사실을 썼다. (조선일보 세월호 3년, ‘안전 업그레이드’는 없고 政爭만 있었다 3.24)

다시 그때를 되돌아 보면 2014년 4월 15일 오후 9시 세월호가 인천에서 제주도를 향해 출발했다. 원래 출발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지만 약천후로 출발이 늦춰졌다. 탑승자는 제주도 수학여행을 떠나는 경기도 안산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을 포함해 교사14명, 인솔자 1명, 일반탑승객 74명, 화물기사 33명, 승무원 29명 등 모두 476명이었다.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전남 진도군 앞바다인 조류가 거센 맹골수도에 서 세월호는 급격하게 변침을 했고, 배는 곧 중심을 잃고 기울어져 표류하기 시작했다. 8시 51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구조요청 신고를 했다. 배는 침몰하고 있었지만 선내에서는 “이동하지 말라”는 방송이 연방 흘러나왔다. 9시 35분 해경 함정 123정이 도착했다. 기관

부 선원 7명이 승객을 버리고 탈출해 구조됐고 조타실 선원들도 뒤따라 탈출했다. 침몰 전까지 172명이 구조됐지만, 10시 30분께 침몰한 이후 단 1명도 구조되지 못했다. 희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었다.

‘라쇼몽 효과’라는 말이 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으로 해석하면서 본질 자체를 다르게 인식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다. 자신이 기억하고 싶은 것만 골라 ‘취사선택’한다는 의미로도 쓰는데, 그래서 현재의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재구성하는 기억이라고도 한다.

라쇼몽 효과처럼 동일한 사건에 다른 시선, 어쩌면 사실을 보는 시각이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다른 면만을 보려하는 것이 인지상정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다시 물 밖으로 나온 세월호 앞에서 304명의 안타까움 죽음 앞에서 아직도 명확치 않은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시에 사람을 구하지 못한 잘못을 사과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할 지를 되물어야 할 시간이 아닌가 한다.

정유년의 사월, 더 샛노란 들꽃이 지천에 필 것 같다.

글 | 이영진
younggeen2@naver.com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서양화가 원창희 ‘1100호 초대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관장 문세환)에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근대미술관(구 18은행 군산지점)에서 서양화가 원창희 ‘1100호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군산에서 처음 갖는 ‘1100호 대작 초대전’으로 지역 원로작가의 작품전을 통해 군산예술의 위상을 보여주고자 마련되었으며, 내향, 선유도, 하제포구 등 익히 보아온 우리고장 풍경을 통해 역사적 흔적을 기록하고자 했던 원 화백의 작품 20여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평생 미술의 길을 걸으며 숭한 후학을 양성한 원창희 화백은 전북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동경아시아미술대 상전 심사위원, 한국미술협회 군산지부장을 역임하며 한국 현대미술가협회(KAMA) 및 한국구상미술원로회 작가로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담한 구도와 붓질로 호남의 향토적 서정성을 보여주는 원 화백의 이번 초대전에서는 작품명 ‘하제의 설’과 ‘군산 내향’을 비롯한 수십여점의 활작이 공개될 예정이며, 화백이 중요시하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 생명력 넘치는 우리지역의 풍경, 자연의 신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건강한 낭만 등 그의 작품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를 통하여 “지역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해 온 원창희 화백의 열정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많은 관람객이 군산이 가진 역사와 시간, 향토적 낭만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근대미술관은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분관으로 국가등록문화재 제372호인 일본 18은행 군산지점을 보수 복원하여 현재는 미술전시 및 안중근 감옥 등을 재현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술가! 개복과 통하다’ 군산시민예술촌 야외갤러리 ‘아트테리토리’展

- 익숙하면서도 낯선 풍경, 「빌딩산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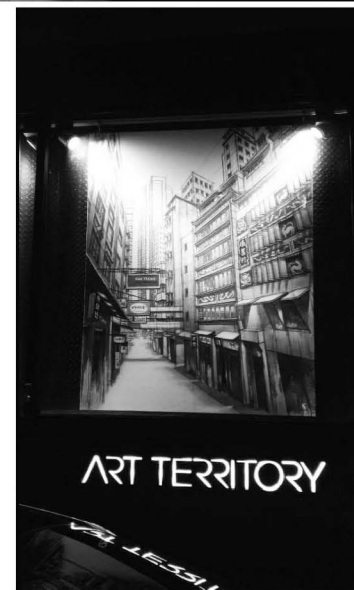
지역예술인과 군산시민예술촌이 함께 만들어가는 전시공간인 야외갤러리 ‘아트테리토리’전이 2017년 첫 번째 전시회 문을 열었다.

금번 전시는 수묵작업을 통해 고층건물과 인간의 몸을 그래픽적으로 표현하며 활동하고 있는 동양화가 이여운의 작품(홍대 대학원) 『빌딩산수』 등 총6점의 작품으로 3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2달간 전시된다.

군산시민예술촌의 문화예술거리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아트테리토리(야외갤러리) 전시회는 도심과 도심을 연결하는 가교역할로서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016년도부터 지역의 작가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2017년도에는 주제가 있는 전시로 원도심(개복동)의 중심에 있는 예술인의 거리와 인근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배경을 기억하내는 과정 안에 사람을 매개로 공간과 시간을 재발견하는 작품(미술,사진등)으로 청년작가와 지역작가의 작품으로 총 5회에 걸쳐 전시될 예정이다.

군산시민예술촌의 대표 박양기 총장은 아트테리토리 전시회를 통하여 전국의 수준 높은 작품을 야외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장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민예술촌
GUNSAN CITIZEN ART VILLAGE

군산시 중정길 17 (구 우일극장)
063-443-7725 / www.gsartzone.kr

한 후원자의 스토리

청소년 자치연구소와 청소년자치공간 달그락달그락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100%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달그락의 후원자이자 청소년위원회 위원인 이백만 위원은 세무법인 한결멘토 전문이다. 어렸을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자기 일의 매력이라고 말하는 그는 세 자녀의 아버지이며 '열정'적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한다. 그와의 인터뷰 내용을 공유한다.



국회청소년참여권 토론회 참석 시 이백만 위원

1. 청소년자치연구소 & 달그락달그락은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인을 통해 청소년자치연구소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카페로 활동내용을 살펴보다가 지역 성인들을 위해 개최하는 달달포럼을 알게 되었어요. 달달포럼에 참여해 본 뒤 더욱 이 공간이 지역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청소년위원회라는 성인조직에 참여하여 달그락달그락을 지원하는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가요?
경제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자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더하여 거담TF에 참여하여 지역의 좋은 성인 분들을 후원자로 안내하고 있습니다.(거담TF: 자신의 관계를 열어 지역 시민에게 청소년자치연구소&달그락달그락 운영을 위한 후원을 제안하는 성인모임, 거룩한 부담의 약자)

3. 달그락달그락의 장점과 지역 성인으로서 본 활동의 기쁨은 무엇인가요?

자치활동의 필요성, 자치활동에서 청소년들의 주체성 등 달그락에서 중요시하는 가치에 동의하며, 청소년들이 지역에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만들어가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준비하고, 발표하는 등 스스로 해나가는 것이 많아요. 달그락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제가 청소년으로서 돌아간 기분도 들어요. 달그락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저 또한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된다는 것, 가치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4. 후원자 소개를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 활동이 멈추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

겠습니다. 이런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이 청소년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걸 알게 되고, 나누면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거담TF활동에 참여하여 좋은 분들에게 달그락달그락을 소개하고 있어요.

5. 청소년의 아버지로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청소년들이 행복하다는 것은 청소년들이 만족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불만족하는 것들은 최소화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서로 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다수가 상급학교 진학에 집중하고 있어, 가치관을 형성하고 나와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라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활동, 공간 등이 있어야 해요. 청소년들을 시민으로 인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청소년들의 아버지라면 청소년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안내자, 매니저 역할을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청소년들이 달그락달그락의 자치기구와 같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요. 같이 참여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고요.

청소년자치연구소 및 달그락달그락
다음카페 : cafe.daum.net/ymcaleader
홈페이지 : http://www.youthauto.net/
페이스북 : www.facebook.com/youthautonomy/
문의 : 063-465-8871, jbyar@daum.net

야회



우리나라에서 서구식 파티는 언제부터 시작 되었을까? 서구식 상설연회는 1880년대에 들어서 정례적으로 각국의 외교관에게 연회를 베푸는 형식으로 출발하였다. 조선은 1876년 일본과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한 후 미국, 영국등과 차례로 외교관계를 맺고 관사를 마련하여 상주하는 서양의 외교관들을 받아들였다. 이들과는 단방방문의 형태로 다녀가는 중국의 사신과 외교관계를 할 때 행했던 방식과는 다른 의전과 예법이 필요했다. 고종은 세계 각국에 조선의 외교관과 수신사, 영선사, 보빙사와 유학생 등을 파견하여 서양의 문화와 문물 등 정보를 수집했고 이들이 오가며 서양의 예식, 연회, 만찬, 공연 등의 문화를 접한다.

『구한국외교문서』에 의하면 1899년부터 1903년 까지 외부대신의 이름으로 미국공사관에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연회 초청장에 명칭을 '야회'라고 밝힌 내용이 보인다. 황성신문 실린 고종황제의 어극 40주년 기념행사 일정표와 예식 절차를 보면 '석연'이라는 명칭의 연회가 등장한다. 내용은 시간, 공간, 드레스코드, 참석자를 특정 한 파티로 구성되어있다. 1903년 4월 28일 하오 8시 돈덕 전에서 서구식 최고의 예복인 대레복을 입어야하고 고종황제가 친림 한다는 기록이다.

야회나 석연은 시간의 개념을 근대식 연회에 사용했고 공간의 개념이 사용된 연회로는 원유회(園遊會)가 있다. 서양의 가든파티 Garden party를 궁궐에 도입한 연회의 한 양식이다. 조선시대 궁중의 연향은 궁궐의 내전과 외전에서 행해졌으나 원유회는 후원인 야외에서 서구식 파티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조선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이념으로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예(禮)와 선한 심성을 깨워주는 악(樂)을 중시하여 그 제도를 연향에 담았다. 연향은 예와 즐거움이 함께하는 온 나라 온 국민의 잔치다. 궁중에서 연향이 열리면 노인과 가난한 백성들을 불러 배불리 먹이고 세금을 면하고 죄수를 방면하며 포상을 하였다. 당대 최고의 악기와 음악, 문학, 춤이 있고 음식과 복식이 등장했다. 의례절차에 따라 예식, 만찬, 공연이 한 공간에서 완성되는 종합예술이며 의례를 통해 기록하고 전승했다. 고종황제가 서구식 연회에 동석하지 않은 예에 따라 예식은 점점 레를 따로 하고 만찬과 공연도 분리되어 갔다.

1904년 이전까지 작은 형태의 연회는 입식 식탁에서 행해졌다, 다수가 참여하는 경절 등의 연회에서는 뷔페가 행해졌다. 서양식 식기에 스프와 트뤼플을 담고 커피, 샴페인과 세리주(백포도주) 등이 식탁에 올랐다. 일제가 통감부를



설치한 후 일본인과 친일인사들에게 행사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원유회는 참석 인원이 3,500명까지 증가했다. 궁궐 후원에 일본식 모의점(간이음식점)을 가설하고 돌아다니면서 일본 술과 소바, 스시, 오뎅, 단팥죽 등 일본음식을 코스 요리처럼 먹으며 유흥과 향락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궁궐의 후원은 훼손되고 파괴됐다.

당시 창덕궁의 후원은 북한산에서 뻗어 내린 9만평이 넘는 깊은 수림에 백여 개의 누정과 폭포와 연못들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격조 높은 공간이었다. 궁궐과 궁중 문화는 이제 모두에게 공유된 문화재이다. 예와 악이 함께한 궁중의 잔치 연향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예에서 섬김의 정신을 담고 악에서 흥과 끼가 어우러지며, 춤추고 노래하는 행복한 모던걸 파티, 이웃과 더불어 마음을 주고 받고 하나되는 축제. 이것이 진정한 '야회' 다.

이미숙
차림문화원 대표 복식 수석큐레이터
010-5284-7503

맥군(매거진군산)에서는 행사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사를 맥군 행사 안내란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매월23일까지 입니다. jay0810@hanmail.net

SUN MON TUE WED THU FRI SAT

연구논문

NCERT - 전주
3회 전북연
공소리문화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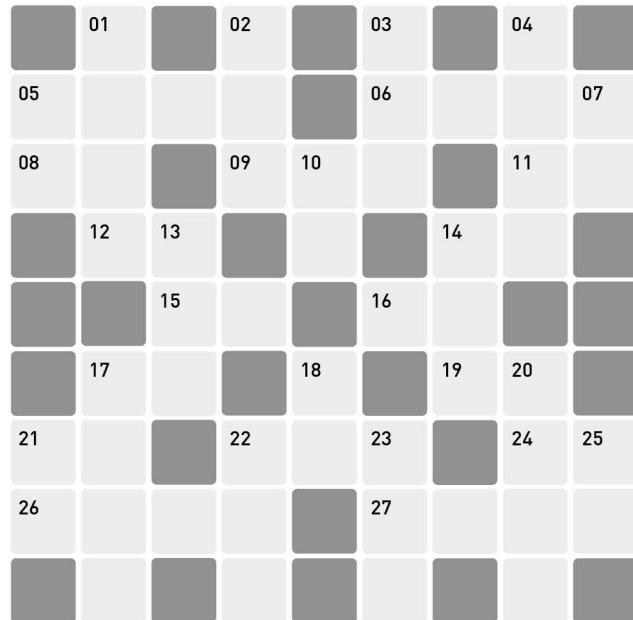
금나새와 한경필 하
모닉오케스트라
군산예술의전당
THE 주현미 SHOW
in 전주
2017 JB카드 고객을
위한 콘서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군산시 칠성안 3길 37번지
(063) 466-7981

날말 실력도 높고, 상품도 받고

즐거워 크로스워드 퍼즐 69



<제68호 퍼즐 정답>

	지	배				고	분	
기	록	영	화		기	등	서	방
	위		교	직	원		갱	
곡	마	단		감		이	유	식
		고	랑		유	난		
전	내	기		양		영	공	권
	신		외	숙	모		중	
기	성	세	대		이	이	제	이
	적	자				수	비	

정답 (이름, 연락처, 주소)을 매거진군산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Fax. (063)911-1856 **E-mail.** jay0810@hanmail.net

정답이었으나 연락처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답과 연락처, 주소를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로 열쇠

- 05 정월 대보름이나 한가위에 여러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남부지방의 민속놀이.
- 06 음주 후 일정 시간의 일을 기억 못하는 필름 끊김 현상.
- 08 썩거나 상하지 않은 채 풍증으로 일어나는 치통.
- 09 음식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름.
- 11 국회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수.
- 12 재빠른 몸놀림이나 여러 가지 도구, 속임수 따위를 써서 불가사의한 일을 하여 보이는 술법.
- 14 예의가 없음.
- 15 가래나 침을 뱉는 그릇.
- 16 꼭두각시. ○○정부. ○○군.
- 17 행정 각 부의 장관이 지시하는 명령.
- 19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이나 식사.
- 21 짬뽕이 우러난 국물.
- 22 생산자에게 물건을 사 모아서 도시의 시장에 내다 파는 장사. 또는 그런 장수.
- 24 얼굴의 눈썹 위로부터 머리털이 난 아래까지의 부분.
- 26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 ↔가상현실.
- 27 탕수육, 팔보채, 간풍기, 오향장육, 등.

세로 열쇠

- 01 치맛단이 무릎에 오는 짧은 치마.
- 02 예전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방식.
- 03 알파벳 W의 이름.
- 04 입교(入敎)하려는 어린아이에게 죄악을 씻는 표시로 베푸는 기독교 의식.
- 05 세계 부는 바람.
- 07 아직 우기(雨氣)는 있으나 착착 내리다가 그친 비.
- 10 손목시계의 태엽을 감는 꼭지.
- 13 다른 일은 다 제쳐놓고 술만 찾거나 마시는 일.
- 17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고 군대를 강하게 함.
- 18 자기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팀. 또는 그런 성미.
- 20 섭취하는 음식물로서 질병을 치료, 예방하고 전신의 영양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
- 21 자신의 종교적 체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일.
- 22 매화나무의 열매로 담근 술.
- 23 위와 가운데와 아래.
- 25 짐승이나 물고기, 벌레 따위를 세는 단위.

출제 | 오성렬(主幹)
poi3275@naver.com

근대군산 1930 시간여행 Modern History Time Travel to Gunsan

군산이 당신의 기억을 힐링해 줄거야



이번에 군산에 가면
빵도 먹고,
점빵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콩나물국밥도 먹고,
호원사진관하고 은파호수공원하고
철길마을에 가서 사진도 찍고,
새만금을 미친듯이 달려보고,
일본식가옥에서 조상의 아픔도 느끼고,
근대역사박물관도 구경할거야.
그리고,
잠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잘거야.

즐거워 여행의 시작은
좋은 숙박에서 시작됩니다.
군산에 오시면
편빌리지로 연락 주세요.
당신이 원하시는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비잠 게스트하우스
010-8436-8810
군산시 구영3길 34-2



햇살이 가득한 집
010-6678-6759
군산시 거석길 39



꽃잠 게스트하우스
010-4489-2663
군산시 구영3길 67



레마 게스트하우스
010-4463-1563
군산시 중앙로 205



사이사이 게스트하우스
010-5401-1959
군산시 구영6길 64



게스트하우스 이웃
010-4048-8811
군산시 구영1길 11-2



전국 최초 게스트하우스 마을기업
군산편빌리지협동조합
www.funvillage.kr 063-446-8830



GO TO THE
KUNSAN

Now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강의실에서 계속되는 토론의 열기는 식히지 못합니다.
젊은 열정과 꿈이 가득한 캠퍼스,
오늘도 연구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학생이 중심인 행복한 대학,
여기는 국립군산대학교!

같이 나눈 70년,
가치 더할 100년



군산대학교 개교 70주년

교육부 평가 최우수 대학



국립군산대학교
KUNSAN NATIONAL UNIVERSITY

web. www.kunsan.ac.kr add. 전북 군산시 대학로 558

Just Kunsan!
Since 1947

교육혁신의 선두!

1주기 대학 구조개혁 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A)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선정

산학연계 교육 선도대학!

지역중심국립대학 중
전국 유일 PRIME 사업 선정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2년 연속 우수대학 선정

산학협력의 강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3년 연속 선정

